

#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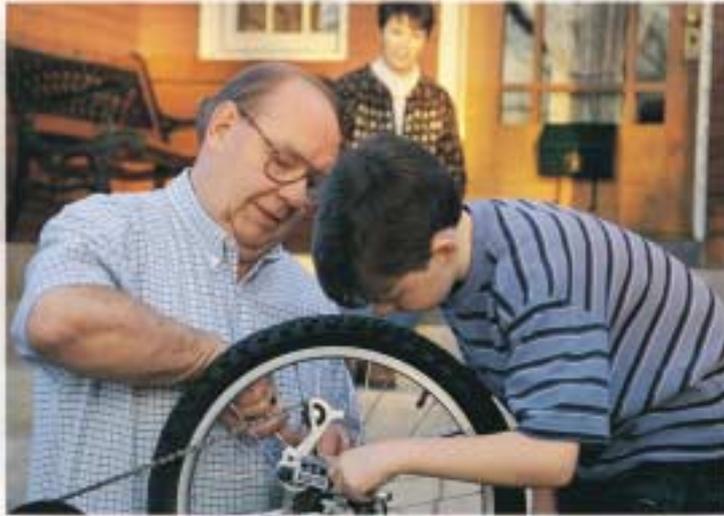


정결한 경건 2쪽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한

손쉬운 시작, 12쪽



**배** 우자를 잃고 슬퍼하는 자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마음이 외로운 자들은 어디서나 우리의 봉사를  
 통해 기쁨을 얻고, 위로 받고, 지지될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고아와 배우자를 잃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2쪽 참조

# 리아호나



**표지**  
모델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시.  
"고아와 배우자를 잃은 자들-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2쪽 참조.



**친구들 표지**  
모델 사진 촬영: 존 룩, "초등학교 그 때와 지금", 친 14쪽 참조.



28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고아와 배우자를 잃은 자들-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2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시련을 통해 강하게 되도록 준비함
- 28 내가 받은 교회의 첫 부름 *존 에이 해리스 장로*
- 34 예수님의 비유들: 달란트의 비유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38 예수님의 말씀: 부활에서 승천까지 *디 리 토블러 장로*
- 42 말일성도의 소리  
    샬리가 웃었기 때문이죠 *제니퍼 엘 맥퀘이드*  
    분노에서 벗어남 *완다 조 쿡*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리카르도 로페스 데 멘돈사*  
    뒷문을 잠가! *켈리 앨런 프랫*  
    세미나리를 통해 받은 축복 *후안 미구엘 아그레 엔카르나시온*
- 48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활용하기

## 청소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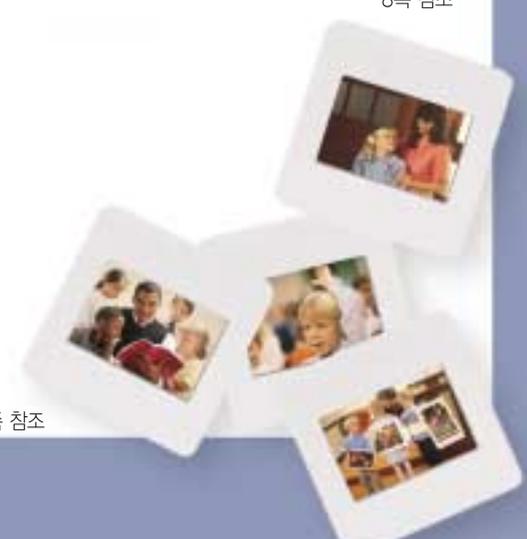
- 8 원을 열이라 *젠 핀보로우*
- 18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야 *줄리 하우스홀더*
- 22 질의 응답: 왜 교회에서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주지 않습니까?
- 26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십시오 *돈 카를로스 비달*
- 32 우정의 그물 *리처드 에이치 윈켈*
- 47 알고 계십니까?

##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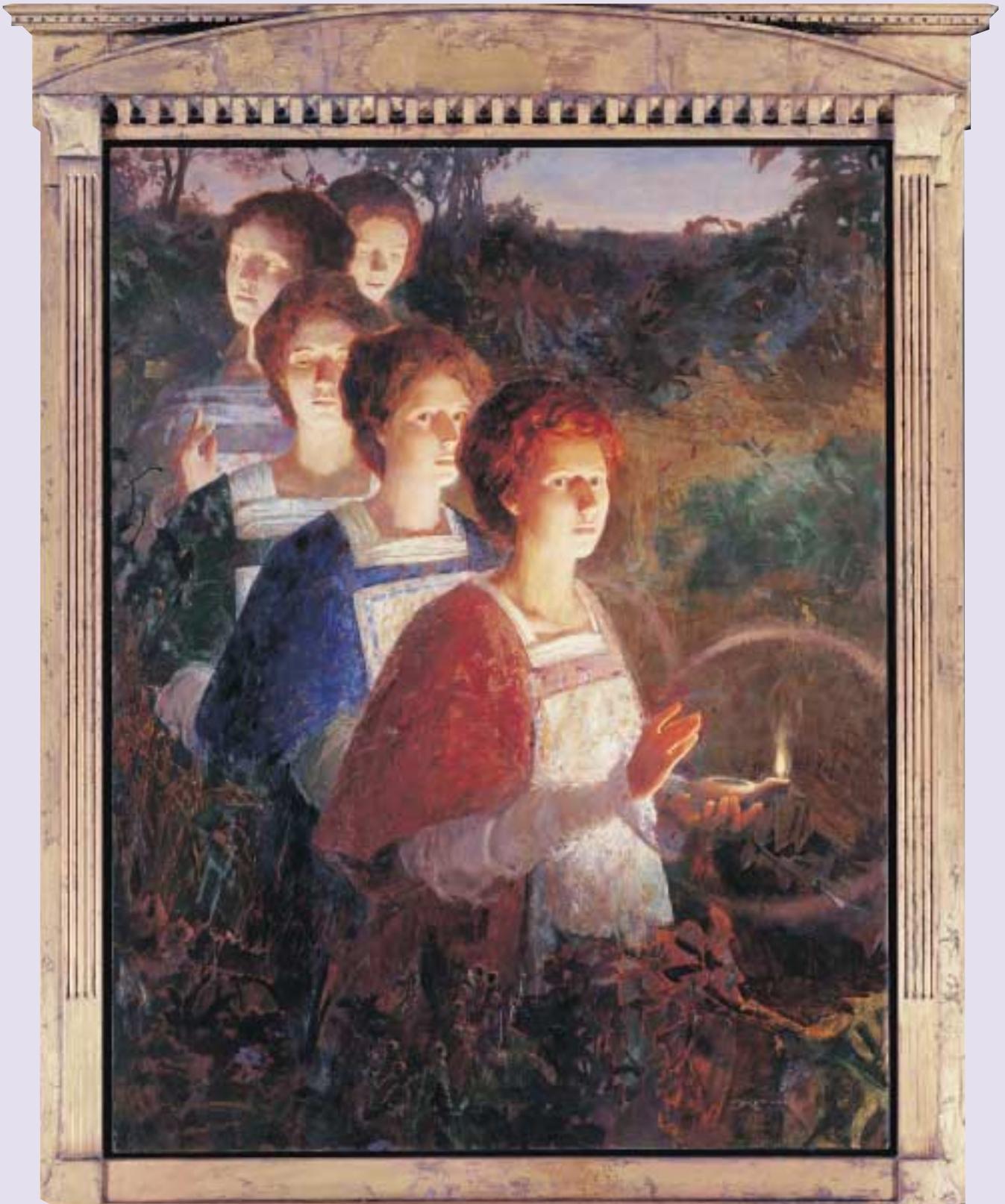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길을 비추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비키 에프 마쭈모리*
- 6 성전 카드
- 7 친구 사귀기: 탐 호이 훈  
*에밀리 차옌과 티파니 이 루이스*
- 10 신약전서 이야기: 시몬과 신권;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 14 초등학교, 그 때와 지금  
*크리스틴 래플리에*



8쪽 참조



친 14쪽 참조



준비된 다섯 처녀, 제이 키크 리차즈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마태복음 25:1~4)



#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제8호

23988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인드  
고문: 제이 켄트 쉘리, 더블류 톨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너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리차드 엠 롭니  
관리 편집인 보조: 마빈 케이 가드너,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랫,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샤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빗, 멜린 민슨, 샬리 제이 오데카트, 애덤 시 율슨, 주디스 엠 팔러, 조나단 에이치 스티븐슨,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텔, 캄벌리 웹,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슨, 스코트 벤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하워드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세리 쿡, 캐리 린 시 해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빈슨, 브래드 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49호, 제 40권, 제 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운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팩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ugust 2003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진리의 기본 원리들”

저는 리아호나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읽는 일은 무척 즐겁습니다. 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됩니다. 모든 말일성도가 이 훌륭한 도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2002년 5월호에 실린 대관장단 메시지 “진리의 기본 원리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에두아르도 아로요 테헤란,  
콜롬비아 바랑키야 파라이소 스테이크  
파라이소 와드

## 아름다운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 나중에 제 아내가 된 한 여성이 제게 리아호나를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도자에서 개종자로 변해 가는 동안, 한 가지 영적인 증거가 제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성신의 평화로운 속삭임을 느꼈으며, 감미로운 동기를 부여받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노력에 감사하고 것처럼 아름다운 기사를 써 주신 영감에 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를 받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한번 이 책을 펴면 쉬지않고 끝까지 다 읽습니다.

알프레도 호세 사네파,

파라과이 페르난도 데 라 모라 남스테이크  
이토로로 지부

## “유혹에 맞서”

리아호나는 제 개인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2001년 11월호에 실린 아이디어 리스트 “유혹에 맞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교사로서 겪는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샬리 티 콜라 자매,  
나이지리아 포트 하커트 선교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함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종교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와 교회 친구인 안드레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발표하도록 지명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반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었지만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생애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웃으며 놀리는 말을 했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전 박대 당하는 선교사들을 떠올리며, 제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고통당하셨다고 말하며 그분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끝난 뒤에 담임 선생님을 포함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클레아 테 수자 리라, 14세,  
브라질 나탈 포텐지 스테이크  
포텐지 와드



# 고아와 배우자를 잃은 자들

##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오**래 전에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교회의 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르간 전주가 연주되는 동안 경건의 영이 그 모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어린이들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년쯤 되어 보이는 홀로된 여성들이었습니다.

문득, 이 분들은 이차 대전 중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추측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자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사회자가 '미망인들은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참석자의 절반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좌절되었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으며, 그들의 미래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 각각의 슬픈 사연들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 죽음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문에 실리는 사망 기사는 그다지 참혹하거나 극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초대 받지 않은 원수가 찾아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종종 우리들의

자녀나 손자녀들까지도 앗아갈 때 느끼는 그 비통함은 누구에게나 비슷할 것입니다. 죽음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때때로 죽음은 오랜 고통 끝에 축복처럼 오기도 하지만, 인생의 절정기에 갑자기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sup>1</sup> "왜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이에 대해 다음의 찬송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함 막고  
분노나 악의로 마음 아플 때  
어디서 내 영혼 찾을까  
은밀히 답하고 어루만지니  
셋세마네 구세주 나의 친구  
나의 간구에 평화 찾아 주니  
늘 친절하신 분 끝없는 사랑<sup>2</sup>

### 사르밧의 과부

미망인에 관한 것은 경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르밧의 과부에게 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으며, 그녀가 갖고 있던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 과부에게



장례식의 꽃이 시든 후,  
방문했던 친구들의 위로와  
기도와 말씀이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종종 슬픔에 잠긴  
이들은 자신이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사진 촬영: 돈 부시스, 몬슨 부대관장; 다른 모델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특히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sup>3</sup>

엘리아의 위안의 말씀이 그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sup>4</sup>

### 나인의 과부

사르밧의 과부는 나인의 과부와 유사합니다. 신약전서에는 주님께서 슬픔에 잠긴 과부를 위해 자비를 베푸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sup>5</sup>

우리의 구세주께서 위대한 모범으로 보여 주신 권세와 다정함과 동정심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고귀한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참한 처지를 볼 수 있는 눈과, 상한 심령과, 소리 없는 호소를 들을 귀와 동정심으로 가득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시력이나 청력으로 서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 “외로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미망인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주님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길게 기도함으로써 외로운 척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sup>6</sup>

니파이인들에게도 그러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러 심판할 때에, ... 과부 ... 를 압제하는 자 ... 에게 속히 증거를 세우리라”<sup>7</sup>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창고는 교회의 회원의 헌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 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러하리라.”<sup>8</sup>

미망인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것은 작고 초라합니다. 대개 그 집은 계단 꼭대기나 골목 안에 숨어 있으며 단칸방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가정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십니다.

실제로 음식과 옷과 심지어는 집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혼을 위한 특별한 선물에 대한 희망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외롭고 비참한 자를 방문하십시오  
울고 있는 자와 지친 자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친절을 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세상을 더욱 밝게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부드러운 훈계에 따르기  
위해서는 성탄절까지  
기다리거나 추수  
감사절까지 그것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중증 배우자를 잃은 분들의 필요 사항은 음식이나 집이 아니라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만드십시오!<sup>9</sup>

장례식의 꽃이 시든 후, 방문했던 친구들의 위로와 기도와 말씀이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종종 슬픔에 잠긴 이들은 자신이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침대들의 소동과, 떠나간 동반자의 부드러움과 애정 어린 관심은 사라지고, 시계의 똑딱 소리는 더 크게 들리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사방의 벽은 마치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10</sup>

작고하신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은 우리들이 명상하고 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훈계를 주셨습니다.

“젊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그들이 한때 그들의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우리는 그들에게 젊음을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지원과, 적극적이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행복하고 화평한 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삶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는 사랑의 봉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을 소홀히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sup>11</sup>

### “알아서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래 전에 심한 가뭄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찾아왔습니다. 웰페어 스퀘어(역주: 복지 광장이라고도 함) 상점의 물건들은 보통 때보다 질이 좋지 않았고,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생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과일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 감독으로서 와드의 많은 미망인들에 대해 걱정하며, 어느 날 저녁에 드렸던 기도는 저에게 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욕심없이 소박하기만 한 이 미망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완전한 삶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는 사랑의 봉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을 소홀히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와드의 한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와드 내에 위치한 농작물 회사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감독님, 제가 감독의 창고로 오렌지와 자몽과 바나나를 가득 실은 트럭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창고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것들은 많은 와드에 분배되었습니다.

그 관대했던 사업가의 아내도 오늘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때 그녀의 남편과 그녀가 내렸던 결정은 그녀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과 영혼의 위안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잃은 이들을 돌보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사려 깊은 이웃들, 그리고 고귀한 여성들의 최고의 군대, 곧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친절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요청을 받고 방문한 상호부조회는,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돕고, 자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sup>12</sup>

미망인들의 찬장이 채워지고, 집이 따뜻하며, 축복 받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사려 깊고 사랑이 많으신 감독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론 신권 청소년들의 특별한 도움을 받게 하여 그들도 모든 사교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와드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 미망인과 홀아비들

종종 배우자를 잃은 분들의 필요 사항은 음식이나 집이 아니라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는 부부 선교 사업을 하던 중 남편을 잃은 한 사랑스러운 자매님을 제 사무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그녀가 일반 선교사 기금을 헌금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금은 남편이 생존 시에 들었던 두 개의 생명 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모습으로 “이것은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 남편도 기뻐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금액은 최고 액수의 선교사 기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었듯이 그것은 하늘에 기록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녀와 리차즈 장로를 교회 행정 건물 내의 대관장단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회의실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자매를 교회 대관장이 앉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저는 대관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망인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가정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십니다.*

그녀는 큰 가죽 의자에 겸손하게 앉아 양손으로 손잡이를 쥐고, “오늘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은 리차즈 장로와 제게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이스트 7번 가를 따라 사무실로 갈 때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한 사려 깊은 딸이 이 복잡한 거리 건너편에 사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따뜻한 음식을 들고 가던 모습을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이제는 그녀도 모친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범은 그녀의 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딸들은 매주 홀로 된 아버지의 집을 청소해 주고, 부친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그와 함께 웃음을 나누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부친의 마음은 늘 자녀들에 대한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 정결한 경건

어느 성탄절 저녁에, 아내와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져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95세의 미망인 한 분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의 안내로 결국, 우리는 벨 자매님을 식당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다 들고 나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손을 뒤로 빼 버렸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녀의 시선이 고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직원은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 카드를 보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카드를 어루만지며 입맞춤도 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 프란시스가 한주 전에 벨 자매님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양로원을 들어설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크리스마스의 영을 느끼며 그 곳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생애 기쁨을 주고 마음을 감동케 한 그 카드의 비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sup>13</sup>라고 하신 주님의 부드러운 훈계에 따르기 위해서는 성탄절까지 기다리거나 추수 감사절까지 그것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미망인, 홀아비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어린이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부탁한다. 명단에 있는 이들이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순 부대관장의 메시지를 읽는다. 명단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도록 권유한다.

2. 가족들에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거나 다른 봉사를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문순 부대관장의 ‘감사 합니다’ 부분을 읽는다. 그런 다음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소리 내어 읽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뜻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축복 받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슬퍼하는 자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마음이 외로운 자들은 어디서나 우리의 봉사를 통해 기쁨을 얻고, 위로 받고, 지지될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sup>14</sup> ■

### 주

- |                                |  |
|--------------------------------|--|
| 1. 예레미야 8:22.                  | <i>Deseret Sunday School Songs</i> (1909), 197장.       |
| 2.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 10. 마태복음 25:40.  |
| 3. 열왕기상 17:12.                 | 11. <i>Thoughts for One Hundred Days</i> (1966), 222쪽. |
| 4. 열왕기상 17:13~16.              | 12. <i>History of the Church</i> , 4:567.              |
| 5. 누가복음 7:11~15.               | 13. 누가복음 10:37.  |
| 6. 누가복음 20:46~47 참조.           | 14. 야고보서 1:27.   |
| 7. 니파이삼서 24:5.                 |  |
| 8. 교리와 성약 83:6.                |  |
| 9. “Make the World Brighter”,  |  |



# 각

청녀는  
어린  
소녀들의

손을 잡고 원으로  
풀어들이면서 모든  
소녀가 그 원 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 원을 열어라

젠 핀보로우

원은 사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내립니다.

**저**는 청녀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제 첫딸을 데리고 새로운 시작 모임에 갔을 때, 저는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앞으로 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와드 청녀들이 딸애를 반겨 줄 것인가? 친구가 되어 줄 것인가? 청녀 지도자들이 딸애를 사랑해 줄 것인가? 앞으로 닥칠 어려운 때에 조연자가 되어 줄 것인가?

개회 기도가 끝난 뒤 나이 많은 청녀와 지도자들이 방 가운데서 손을 잡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원은 우정의 원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가는 원처럼  
끝없고 영원한 우정의 원  
그대가 속하게 될 원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다음 열여섯이나 열일곱 살 되는 청녀가 각각 어린 소녀들의 손을 잡고 원 안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소녀가 그 원 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노래가 무의미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훌륭한 일의 상징이었습니다. 와드의 청녀들은 제 딸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소녀들은 딸 아이를 새로운 친구로 여겼으며, 상급생들은 귀여운 동생으로, 지도자들은 소중한 딸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 청녀들과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제 딸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 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며,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부모로서 이와 비슷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을 열고 그분의 모든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원이 사람들을 쉽게 소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원을 만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와드나 학교나 반으로 옮겨 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컹, 게임의 문은 닫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네.” 우리는 대부분 원 밖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우리가 사람들을 원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절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배워야 할 주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든 음악이든 그들은 무엇이든 다 잘합니다. 한번은 제가 그들을 칭찬했을 때 그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똑똑한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칭찬하며 감탄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녀들을 높이 평가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친절합니다.

아마 주님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성구 익히기 구절을 모두 외우며 축구 팀에서 스타로 활약하고 중요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업적은 크게 가치가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3:1~3 참조)

### 경쟁심

한 청년은 농구를 잘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히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 1때 주 대표 선수로 선발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속된 고등학교 농구 팀의 다른 선수들이 더 이상 그녀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 안에 포함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쟁, 즉 자신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벌이는 경쟁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적입니다. 그것에 직면할 때, 인생은 경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원하던 영예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의 원이나 우리의 사랑의 원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승자든 패자든, 인생을 그분의 자녀들 간에 있는 큰 경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고리와 성약 46:11~26 참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거나 우리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참된 친구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3~14) 그리스도의 우정으로 축복을 받아 왔으니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친구가 될 때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 스스로 우정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과 진보에 가장 의미 깊은 공헌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칠십일 정교회, “우정: 복음 원리”,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76쪽.

## 솔선함

친구들의 원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룹이나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여러분의 원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룹의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룹의 지도자가 그 그룹이 느끼는 자연적인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지도력은 굳이 감독으로부터의 부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부름이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교리와 성약 38:25)

이 구절은 또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열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나 학교에서 어떻게 대우 받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보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신권 정원회에서 혼자 떨어져 앉아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집사를 만나고 여러 주 동안 그의 곁에 앉아 그가 여러분이 그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함께 운동하는 그룹에 초대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오.

##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어느 어린 용감한 소녀가, 다른 사람들을 원 안에 받아들이는 일을 솔선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지를 제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초등학교 3학년 학기 초 둘째 주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쉬는 시간에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낙제를 하여 지난 해에 굶우었던 아이들이 그녀를 놀려댔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즉시 놀림을 받은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 어린이는 비록 자신에게도 친구가 없었지만, 빈 손으로 그 무정한 원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 태도로 울고 있는 소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일 년을 쉬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나보다 어린 아이들 반으로 데려다 주셨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두 어린이는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원은 끔찍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

젠 핀보로우의 솔트레이크 이스트 밀 크리크 스테이크 이스트밀 크리크 제4워드 회원이다.

## 주

1. “Circle of Friendship”, *A Song of the Heart*(1978), 30쪽.



## 여러분이 교회나 학교에서 어떻게 대우

받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보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교리와 성약 38:25)

## 여러분의 가족 역사:

# 일을 시작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한 출생 증명서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어느 일 세대에게 있어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는 동안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패커 자매와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를 여행해야 하는 교회에서의 책임과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의 임무로 인해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역사에 관한 책임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중에 약간의 시간이 있어 드디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정상적인 일과로 돌아가자 우리는 매일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과, 장막 저편에 있는 영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일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로 여행을 하는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많은 간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해 온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의외로 너무도 쉽게 그 자료들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훌륭했던 것은, 우리가 전혀 꿈꾸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족에 대한 탐구 작업이 영감 받은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는 일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다른 모든 책임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삶에서 더 큰 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일을 시작할 때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결정과 실행은 개인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대한 간증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은 제가 코네티컷 하트포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장단 전원에게 가족 역사 사업을 주제로 말씀하도록 3개월 전에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스테이크장단에 있던 보좌 한 분은 그 대회에서 스테이크 축복사로 지지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사건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간증을 갖고 있었음에도 막상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으로 개인의 역사를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그는 출생 증명서 외에는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관해 아무 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탈리아에서 이민왔으며, 그는 11명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이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애에 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며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고 그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소에 계시던 연로한 어머니가 이탈리아에 있는 고향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녀가 이러한 소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족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가족 가운데서 유일한 교회 회원인) 이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탈리아에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조상의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례 받은 교구의 교회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는 많은 친척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그 교구에 500년 전까지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읍 사무소를 찾아가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매우

**우** 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자료들을 단순히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라도 시작한다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잡아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조상의 집을 찾아가 많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례 받은 교구의 교회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그 교구에 500년 전까지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조적이었습니다. 사무소의 서기는 그에게 지난 여름에 가톨릭 신학과와 수녀가 함께 와서 이 형제의 가족에 관한 기록을 찾았으며, 그들도 그 가족의 역사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서기는 그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알려 주었으며, 덕분에 그는 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에 그 가족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오는 길에 그는 그의 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콜로라도를 들러 왔습니다. 그 곳에서 별 설득도

없이 가족 문증을 구성하고 가족 친목 모임이 계획되었으며, 그 계획에 따라 모임도 실행되었습니다.

그 후, 항상 그렇듯이 고모나 삼촌, 형제와 자매 같은 일부 친척들이 그로서는 결코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의 생애에 관한 사진과 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다시 한번, 이 일이 영감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가족의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은 제가 여덟 권에 달하는 가족 기록을 가족 및 교회 역사부로 갖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전문가 수준의 가족 역사 사업으로 완성된 6,000매에 달하는 패커 가족의 가족 기록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원래 학교 교사요, 루터 교도인 오하이오 출신의 워렌 패커가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그 기록에 두 권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가족 역사 사업의 정신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국에 있는 패커 조상의 가정을 찾아내고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국에 있는 많은 영주들의 대저택이 최근 일반에게 공개되었지만 이 가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저택은 영국 런던 성전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으며, 주위가 못으로 둘러 싸인 고대 성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1600년대 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상들의 초상화는 대략 300년 전에 걸려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성곽에는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은 1625년에 새겨진 패커 가문 문장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나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 역사 탐구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에게 헌신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자료들을 단순히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라도 시작한다면, 모든 일들은 마땅히 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시작하는 방법

문제는 시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니파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알고 있었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니파이일서 4:6)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떤 기록을 수집해야 하고,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시작해야 할 곳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상자를 하나 구하십시오. 어떠한 상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파 옆이나 식탁 위와 같이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몇 주 동안 출생 증명서, 축복 증서, 침례 증서, 성임 증서, 졸업 증서 등과 같은 모든 기록들을 모아 그 상자에 담아 두십시오. 졸업장, 각종 사진, 훈장이나 상장, 일기,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 관해 기록되거나 등록된 모든 것, 혹은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것과 그 동안의 업적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들을 수집하십시오.

이것을 하루에 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것들은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자에 담긴 채 차고에 있는 신문지 더미 아래 놓여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서랍이나 다락에, 혹은 또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것들은 성경책 겉표 속에 끼여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하여 상자에 담아 두십시오.

**여** 러분이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에 관심을 나타낼 때 매우 흥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확고한 원리입니다.



**상** 자를 하나  
구해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놓아 두고 자료들을 모아  
넣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모을 때까지 그것들을 그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그런 다음 식탁 한쪽이나 마룻바닥에 공간을 마련하고 수집한 모든 것을 분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십시오. 교회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합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 즉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 나뉩니다.

유년기의 기록부터 시작하되 출생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기록, 사진, 침례 기록 등을 열두 살까지 연대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런 다음 청소년기에 관한 모든 것을 12세부터 18세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 하나로 묶으십시오. 모든 것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증서나 사진 등과 같은 기록들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다른 상자나 봉투에 넣어 두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생애에 관한 기록도 정리하십시오.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춘 것입니다. 간단히 출생 증명서를 보고 다음과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1924년 9월 10일에 유타

주 브리감시티에서 이라 더블류 패커와 엠마 젠슨 패커의 아들로 태어났다. 열 번째 자녀이자 다섯째 아들이다.”

생애의 일들을 글로 쓰거나 녹음을 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수집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생애에 관한 역사를 날짜별로 요약한 후에는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억의 책이 될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종종 떼어낼 수 있도록 책장에 가볍게 붙여 둡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의 기억의 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하고 나면 매우 흥미 있고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한 영을 지니지 않고, 적어도 직계 가족 안에서 이것에 관해 말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이만큼 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에 관심을 나타낼 때 매우 흥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확고한 원리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간증들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모는 여러분이 증조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조부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해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모가 그 사진을 보여 줍니다. 분명 증조부께서 어린 아기인 여러분을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기록을 조사하면서 여러분은 증조부가 여러분이 태어난 이듬해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족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이 의미하는 바도 남다릅니다. 당장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은 조상 중 누군가를 위한 성전 사업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침례가 필요한 것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침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동안 침례를 받거나,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전서는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경전의 말씀과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작성된 자신의 가족 역사를 갖고 있으며, 기억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니파이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니파이일서 4:6)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자를 하나 구해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놓아 두고 자료들을 모아 넣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 마음을 돌이킬 때

가족 역사 사업은 죽은 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산 자를 위해서도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을 정화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상에 살아 있는 가족과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함께 묶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성전 의식에 필요한 어떤 이름이 승인 받지 못할지라도 그 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들을 탐구하는 절차와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이름들이 특정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을 모르고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통을 탐구할 때 우리는 성전 의식에 사용될 이름이나 숫자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리게 하며, 그들을 찾아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

이 기사는 패커 회장의 저서인 거룩한 성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가족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가** 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은 일부가 재조정되거나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애에 관한 역사를 편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각자 지역의 책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우리는 개인과 가족으로 각자 4대부터 시작하여 돌아가신 친척을 찾아내야 하며, 그 후에는 할 수 있는 한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 우리는 요청을 받을 경우 성명 초출과 같은 가족 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우리는 가족 조직을 갖추고, 여러 가지 친목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6. 성전에 갈 수 있을 경우, 우리는 각자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가서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을 위해, 그런 다음에는 조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직접 수집하지 않은 다른 모든 성명을 위해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 자

머리카락의  
사유

# 머리카락



줄리 하우스홀더

## 이상한 질병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짙은 금발이 저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마음에 들 때까지 이런 저런 헤어스타일을 해 보느라 거의 30분씩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해 오던 이런 일은 저의 일상 생활을 영원히 변화시키던 그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콘택트 렌즈를 낀 후 졸린 눈으로 거울을 보던 저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조그맣게 머리카락이 빠진 부분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가까이 다가가 졸린 상태라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제가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이 무엇인가에 걸려 빠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머리카락이 빠진 부분이 가려지게 머리를 갈라 빗고 급히 학교로 갔습니다.

그 날 이후, 제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부분들은 동전만한 것부터 주먹만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여러 의사를 찾아갔으며 그들은 제 머리를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무릎을 꿇고 의사가 말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리**는 건강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님께 위안과 힘을  
간구했다.



## 즐리는 다양한 헤어스타일

을 연출하는 일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그녀의 남동생들은(옆 페이지) 그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함께 머리를 밀었다.



힘과 위안을 간구했습니다.

2000년 9월에 저는 탈모증이라는 자가 면역 장애를 갖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치료 방법도 없고 머리카락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의사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즉각 저의 마음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의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의사를 만난 후, 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머리를 면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제 모습은 전혀 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은 땅에 떨어졌으며,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 어떻게 생각할까? 모두 뭐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스카프가 저의 헤어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30분씩 보내는 대신, 저는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에 주의 깊게 스카프를 쓰는 데 5분 정도의 시간을 썼습니다.

스카프는 색상이 다양하고 편했지만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머리카락과 같은 색의 가발을 써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에서 벗겨질까봐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스카프를

쓰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사람들이 모두 저를 피한다 하더라도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쳐다볼 때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제 자신이 대화에 오르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인정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의 복도를 걸으면서 제 자신이 만든 모토를 기억하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살아 있다는 축복과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하며, 앞에 놓여 있는 날들을 견디어 내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예전의 저와 현재의 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듣기 싫은 농담을 하면 저는 속으로 제가 만든 모토를 생각합니다.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야. 괜찮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일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축복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고 형벌로 생각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부분을 발견한 그 아침 이후로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머리에 아직도 머리카락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다섯 번이나 면도를 해야 했습니다. 면도를 할 때마다 저는 삶에 대한 더 큰 열의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압니다. 주님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머리카락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조소하지도 않으시며, 머리카락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사랑과 지지도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성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곳에서 제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하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이며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아십니다. 그분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속죄가 가져다주는 위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제가 겪은 고통과 앞으로 겪게 될 고통보다도 더 큰 신체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겪으시고도 참아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

줄리 하우스홀더는 유타 프루트 하이츠 스테이크 프루트 하이츠 제7와드 회원이다.



## 줄리는 아직도 탈모증이

있다.(아래) 그녀는 머리카락이 자라기를 가슴 조이며 기다렸으나 다시 머리카락이 빠졌다. 자신의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그녀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질 의 응 답

왜 교회에서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주지 않습니까?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리아호나의 대답

**질** 제로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맺는 성약과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포함하여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분처럼 되도록 도움을  
주는 다른 지침들도 주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한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관해 구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물품 번호 36550 320)라는 훌륭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복장에서부터  
안식일 준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해 줍니다. 이 지침들은  
풍량이 이는 말일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들은 개인의 삶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옳고 그른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결정을

예언자의 말씀과 경전,  
그리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등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만한 목록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로봇처럼 무조건적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그  
어떤 목록보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신을 따를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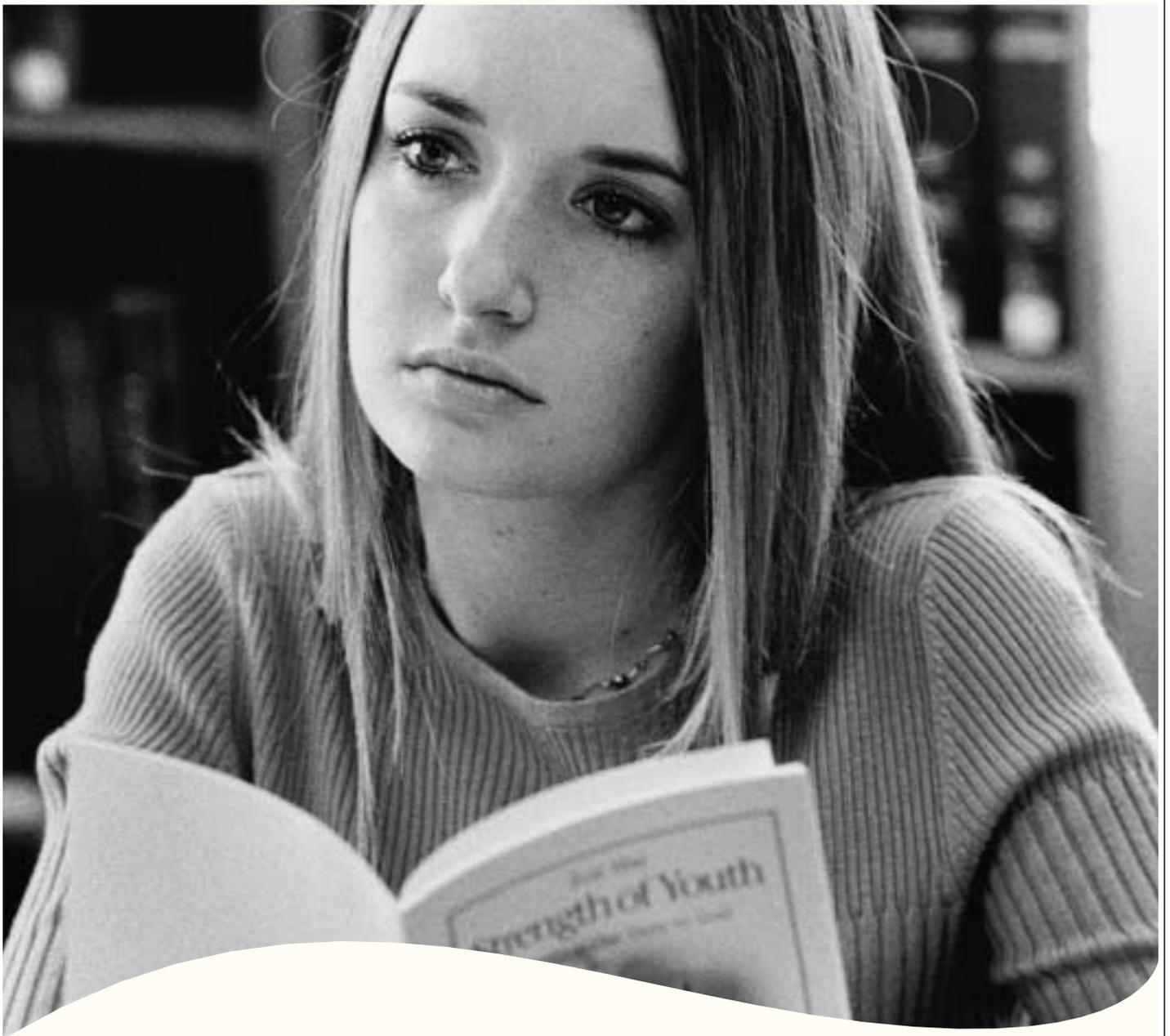
## 독자들의 대답



구원의 계획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찾아내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지침입니다.  
브라이언 미들톤, 17세,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스테이크  
엘도라도 와드



교회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목록을 마련해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알려 줄 수 있는 성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계명과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며,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시니 팔라타우, 20세, 통가 누쿠알로파 남 스테이크 베이통고  
와드



저의 선교부장님은 교리는 원리를 깨닫게 하고 원리는 규칙을 알게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그 교리로부터 나오는 정확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을 통해 더 자세한 규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이 이토 장로, 22세, 일본 삿포르 선교부



주님과 그분의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십계명(출애굽기 20장 참조)과 두 가지 큰 계명(마태복음 22:36~40 참조)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카테 멘사, 22세, 가나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케이프 코스트 제2와드



만약에 목록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목록은 결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즉각적으로 손쉽게 오는 대답이 없어야 우리는 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카트리나 보이그트, 14세, 미네소타 로체스터 스테이크 프레스턴 지부

## 리아호나의 대답

내리시겠습니까?

많은 독자들이 지적하듯이, 교회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목록을 출판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컴퓨터나 로봇처럼 정해진 지시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성신의 은사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 너는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13)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을 알려 주는 목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영의 속삭임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옳고 그른 것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두 길이 모두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서 가려내기 어려운 차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영을 따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영의 자녀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니파이삼서 27:27 참조) ■



### 의의 일 하세

여러분은 영적인 수양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영적인 수양이란 영의 속삭임을 분별하는 능력과 그에 따르는 역량의 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역량은 반복을 통해 자동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질 때까지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 영적인 수양의 과정 동안 여러분은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선택들을 주의 깊게 피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의 리처드 디 스코트 장로,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1쪽

## 독자들의 대답



경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서서 32:3)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신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십시오.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나 비탈리에브나 수르시아코바, 20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방부 도네트 크예프스키 지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존 테일러 인용, Millennial Star, 1851년

11월 15일, 339쪽) 교회에서 우리는 참된 원리를 배웁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축복이 올 것입니다.

마르네일로 엠 달라, 19세, 필리핀 카가얀 데 오르 서 스테이크 이니타오 워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성명, 나이, 워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과 함께 보내 주십시오. 자신의 사진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답을 2003년 9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9/03,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 질문

제 남자 친구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 친구는 복음보다는 저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그릇된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시련을 통해 강하게 되도록 준비함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힐라맨서 5:12:**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낼! ... 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끌어 넣지 못할지니 ...”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깨를 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의 난관을 이겨 낼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갖고 힘찬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강건함,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난관들을 헤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난 후에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전한 항구를 찾음”,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3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는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에 대한 확신

이상으로 강하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이 여러분과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두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만 영원한 문제와 그 문제가 현재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력에 있어서는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시련을 견딘다면,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 도움은 한 번에 조금씩 차근차근 옵니다.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성장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은 계속 됩니다. 모든 문제가 첫번 간구에서 해결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7쪽)

**교리와 성약 58:2:**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란

중에서도 충실한 자는 저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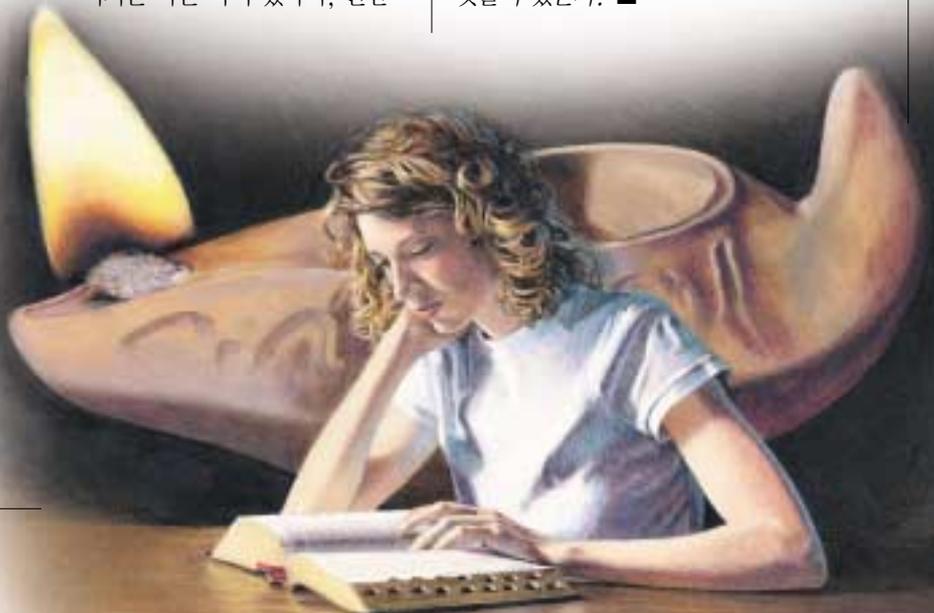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현대의 예언자는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여, 기름의 준비는 매일의 의로운 생활에 의한 방울씩 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하여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등에 기름을 더해 줍니다. 금식, 개인 기도, 가족 기도, 가정 방문 교육, 우리의 신체적 욕구를 조절하는 것,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서로 돌보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계명을 지키며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됨”,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99~100쪽)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는가?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시련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가?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하고



**부** 모님은  
선교사들이  
집에 와서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셨다.  
우리 가족에게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때였다.

# 싫은 말을 다 하십시오

돈 카를로스 비달

**19** 93년 4월에 부친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레일리코라는 작은 마을의 한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고 있었다. 그 때 젊은 두 남자가 다가와서 가족을 방문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부친은 승낙했으며 그들은 곧 우리 집으로 왔다.

나는 아직도 동생 세바스티안이 내 침실로 뛰어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이던 것을 기억한다. “형, 이리 와 봐! 선교사들이 왔어.” 우리는 전에 거리에서 그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우리는 그들을 놀려댔었다.

그 날 그들은 부모님에게 물몬경을 주었다. 이틀 후 선교사들이 다시 들렀을 때, 그들은 어머니가 물몬경을 다 읽으신 것과 많은 질문이 적힌 목록을 보고 무척 놀랐다. 선교사들은 몹시 감격해 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장로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이지 종교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서 개종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토론을 하면서 처음 보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커다란 신앙과 인내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쳤다.

어느 추운 날 우리는 토론이 끝난 후에 선교사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머니에게 정말로 이 새로운 종교에 가입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실 생각이신지 여쭙었다. 나는 어머니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침례를 받을 거다.” 그 순간 나도 그것이 참된 것인지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토론이 계속되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16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셨지만 결국 허사였고, 아버지는 종종 사교적인 모임에서 술을 드셨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종교때문에 이제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다.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복음이 정말 회복되었는지, 혹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유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나 어머니가 담배를 끊으실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려 했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침례를 받으셨다.

나도 계속 물몬경을 읽고 기도했으며, 그로 인해 물몬경에 대한 간증이 생기자 침례를 받았다. 몇 주 후, 아버지도 같은 결정을 내리셨으며, 2년 후에는 동생도 침례를 받았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나는 불과 열세 살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보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었으며, 복음이 우리 생활에 가져다준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작용하셨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도우셨던 것이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 또한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 이제 내가 집을 찾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 가족 중에서 개종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영이 10년 전에 우리 가족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을 기도한다. ■

돈 카를로스 비달은 오래된 유진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내가 받은 교회의 첫 부름



존 에이 해리스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저는 저의 혈통이 중국, 영국, 라틴 아메리카 및 스위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족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침례 받은 직후 제가 참석했던 가족 역사반은 엘리야의 영으로 제 가슴을 더욱 충만하게 했습니다.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를 작성하고 가족 역사를 쓰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불과 몇 주 후에 지부장님은 제게 가족 역사반에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여섯 살이었던 제게 그 간단한 임무는 전 생애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흔하지 않은 해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이 이름은 영국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음) 성장하면서, 저는 스위스와 중국뿐 아니라 영국에까지 조상을 둔 독특한 가문으로 인해 자연히 가족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과들은 엘리야의 영으로 제 가슴을 더욱 충만하게 했습니다.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를 작성하고 가족 역사를 쓰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공과반을 수료하고 난 뒤 저는 가족 역사반 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가족 역사에 관한 일을 하면서 여러 번 영적인 경험을 했으며,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때 그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든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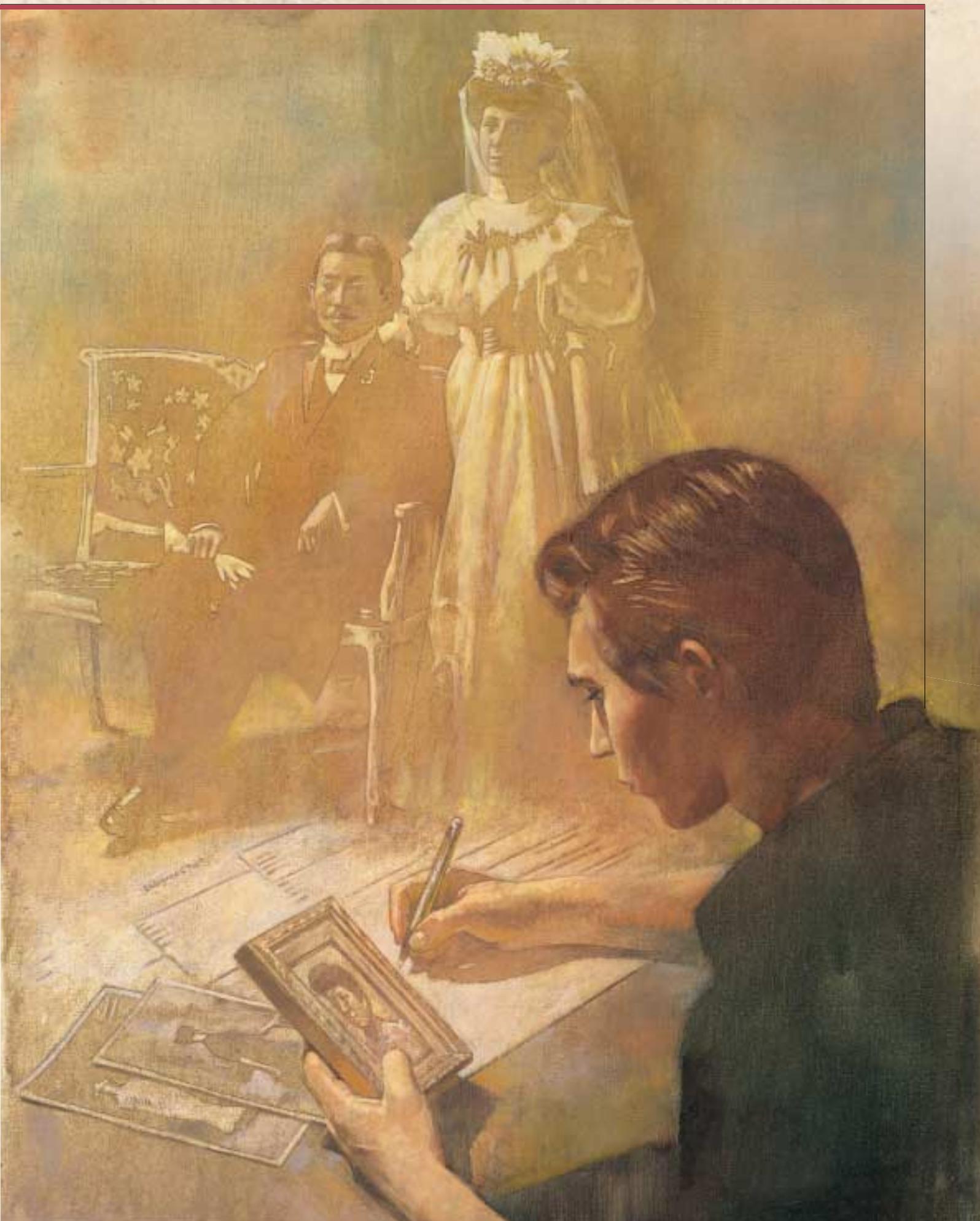
## 우루과이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들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저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부장단 보좌로 봉사하던 저는 선교부의 가족 역사 책임자로 부름 받기 위해 그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계보과의 조지 에이치 퍼지의 방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루과이에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의 일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기 원했고 제게 그 일에 대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날 밤 저는 제가 부탁 받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신문에서 “우루과이의 계보 사업”이라는 붉은 글씨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앞으로 있을 우루과이 계보 학자들의 모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문은 발간된 지 며칠 지난 것이어서 이미 그 모임은 끝난 뒤였지만 저는 기사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곳을 방문하기로 한 날 저녁, 저는 청소년 모임의 감리자로 지명을 받아, 저녁 9시 30분까지 교회에 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차비가 없어 걸어갔기 때문에 그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람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그가 한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늦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방금 왔거든요. 몇 분만 일찍 오셨더라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곧 그가





해리스 장로의 가족 역사에는 스위스, 중국 및 영국의 조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왼쪽부터: 계보에 관한 중국 시; 스위스 쪽 친척들; 페루 카야오에 있는 스위스 쪽 조상들의 묘비; 해리스 장로의 조부의 사촌, 엘사 하우슨; 조부와 조모의 결혼식 날; 중국에 있는 증조부와 가족들.

우루과이에 있는 유일한 계보 학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모임에 관한 기사를 신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기사를 발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퍼지 형제가 이 중요한 계보 학자 그룹과 모임을 갖도록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 보관소를 그에게 열어 주었고 이로써, 우루과이에 있는 가족 역사 기록의 색인 일부를 최초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계보에 관한 중국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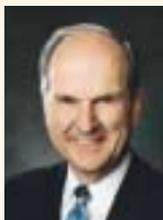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여러 해가 지난 후, 제가 페루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할아버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가족은 중국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족장과 같은 존재였고 사실상, 가족 그 자체가 종교나 다름없었으므로, 연장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률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선교 사업을 하러 가겠다고 나서자 할아버지는 여러 주 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그 분은 제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사용할 면도기였습니다. 저는 그 면도기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가 더 좋은 느낌을 가지시도록 저는 그 분께 페루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석 달 만에, 저는 할아버지의 조카인 구예르모 “윌리” 하우슨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중의 각 세대가 중국의 시에서 한 글자씩 취하여 이름을 짓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시를 찾아내어 제게 한 부를 복사해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우루과이로 돌아온 저는 할아버지께 그 시를 드리고 직접 베껴 쓰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가족의 유산을 기억하게 해 주는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시는 48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자는 세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그 후,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시를 발견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선교 본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페루의 트루히요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82세의 엘사 하우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사촌으로서 중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자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시간 동안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네 명이 아니라 모두

## 진짜 이유



“엘리아는 조상들을  
찾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이 죽음 후에도

열세 명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엘사의 도움으로 저는 또한 할아버지  
고향의 시조까지 찾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 페루에 있는 스위스계 조상들

또다른 성스러운 사건도 역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페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리마의 항구인  
카야오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전혀 몰랐던  
스위스계의 조상들의 무덤이 바로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친척이  
그 무덤들에 관해 말해 주었지만, 결국 저는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까지 그 무덤들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조상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같은 지부에서 두 번  
봉사하도록 지명받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되어 약 일년 만에  
다시 카야오로 돌아왔으며, 그제서야  
인접한 두 곳에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의  
술렵 조상들이 묻힌 곳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 가족의  
기록(18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감)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을  
조사하면서 저는 결국 제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술렵, 57세, 매장일 1875년 9월  
16일, 아나 마리아 술렵 크루제,  
66세, 매장일 1918년 1월 24일”  
저는 드디어 스위스계의 조상들을 찾은

영원히 함께 묶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인봉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 가족  
역사 사업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원리 원칙이니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 [교리와 성약 128:15]”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로운 추수의  
시기”,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34쪽

것이었습니다.

저는 희열에 넘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 역사의 4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명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지역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카야오에 두  
번이나 보내셨으며, 그로 인해 저는  
스위스계의 조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 지속되는 감동

이 모든 특별한 사건들은 제가 침례를  
받고 난 후 6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볼 때 저는 복음에 대한  
간증과 그 신성함이 가족 역사 사업과  
엘리아의 영을 통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켰을 때 여러 번 주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여섯 살에 가족 역사를  
시작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지부장님이 뒹겨 준 약기의 줄은 아직도 제  
영혼의 가장 성스러운 경험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

존 에이 해리스 장로는 남유타 지역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왼쪽부터: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해리스 장로의 할머니; 해리스  
장로가 선교사의 첫번째 임지였던 도시의  
신교도 묘지와 나무 아래 잊혀진 채  
있던 스위스계의 조상의 묘비; 엘사  
하우온을 위시한 중국계 친척들의  
가족 사진.



# 우 정 의



리차드 에이치 윈켈 장로  
철심인 정원희

**저**는 한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북부 해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레드우드 처녀 원시림을 산책하노라면 가슴 벅찬 경외심이 솟아납니다. 이 나무들 중에는 수령이 2,000년이 넘고 키가 92m 이상이나 되는 나무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큰 삼나무는 키가 무려 113m나 됩니다. 그것은 솔트레이크 성전 높이에다 그 높이의 3/4을 더한 높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삼나무가 이처럼 크다 보니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그 나무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우뚝 솟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18~21)

### 뿌리를 내림

해안의 그 삼나무들은 참으로 그들 영역에서의 군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걸작품의 하나로서 압도적인 키와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못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뚝 솟은 거목에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랄 만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라나면 키가 92m나 되고 무게만 해도 460톤 이상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는

**뿌**리가 떨어진 나뭇잎이 나뭇잎과 다른 삼나무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의 뿌리보다 얽히고 설칩니다. 이 뿌리 상호 교차 체제가 그 힘의 비결입니다.



# 그물

기껏해야 1~2미터 정도로, 얇게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주변으로는 100m 이상을 뻗어 나감으로써 다른 삼나무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의 뿌리에도 얽히고 설켜 거미줄처럼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이 얇은 뿌리 체제로는 강한 바람과 홍수로부터 자신을 지켜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 상호 교차 체제는 자신을 지켜내는 힘의 비결이며, 이는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이러한 장엄한 거목들도 혼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삼나무들이나 도움을 주는 다른 이웃 나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결코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새 회원들도 혼자서는 해나갈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도 삼나무처럼 독자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서 그들이 필요합니다.

## 지탱과 지지와 사랑이 필요함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마치 삼나무의 뿌리가 미송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 및 다른 종류의 나무에게 뿌리를 뻗듯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내밉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려와 성원과 사랑을 받을 때 더 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무들조차도 웅기종기 모여 숲을 이루며 성장할 때 더욱 잘 자랍니다. 그러한 나무는 더 크고, 더 곧고, 더 강하게 자라며 더 나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저를 키워 준 끈끈한 우정의 그물에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며,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척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훌륭한 제 아내 카렌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여 준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교회가 오늘날 예언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연대감과 서로 보호하고 아끼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1999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사하·앤단 로이터



# 달란트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재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어떤 부모가 갓난 아기의 눈을 들여다 보면서 그 아기의 미래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기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 아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부모로서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여러가지 놀라운 능력들을 갖고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필멸의 여정을 거쳐야 하는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이 교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으로 가서서(마태복음 24:1, 3 참조), 감람산의 설교로 알려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또한 교리와 성약 45:16~75; 요셉 스미스서 1:5~55 참조)

그 곳은 조용한데다 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징조들을 가르치시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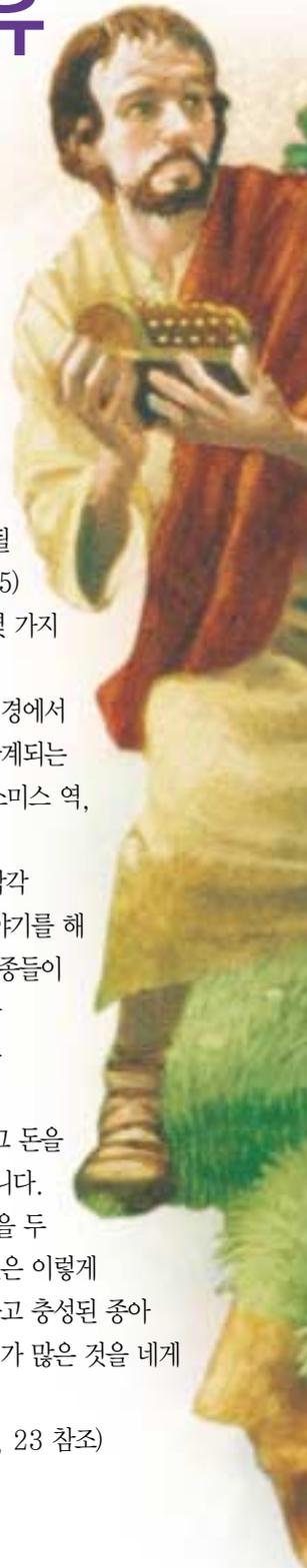
제자들은 낙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는 너희와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줄 알게 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5:35)

예수님은 이 설교의 일부로 몇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번역한 성경에서 예언자는 이 비유들이 말일에 관계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5:1 참조)

예수님은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일정한 돈을 준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돈의 금액은 각 종들이 이전에 나타내 보인 능력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종들에게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두 명의 종은 그들의 돈을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 23 참조)





# 처

음에 받은  
재능을 활용하여  
더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은 더 많은  
재능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을  
숨겨두고 발전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받은 재능마저도 잃게  
됩니다.

## 다른 종

세 번째 종은 떨면서 주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앞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한 것을 들었으며 자신은 그와 같은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마태복음 25:25)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마태복음 25:26,28)

구세주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받은 재능을 활용하여 더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은 더 많은 재능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을 숨겨두고 발전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받은 재능마저도 잃게 됩니다.(마태복음 25:28~29 참조)

## 다른 재능을 얻음

모든 사람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지상에 옵니다. 가족은 비슷한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개인은 각자 자신만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세에서의 삶에 따라 그가 받도록 되어 있는 재능과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한 가지 재능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또다른 재능을 얻습니다.”<sup>2</sup>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때 그분께서 주신 재능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능을 향상시키고 그 재능에 다른 재능을 더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능을 발전시킬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원리를 재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 너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알리지 아니하려고 자기 재능을 숨겨 두지 말라.”(교리와 성약 60:2, 13)

## 세 가지 원리

재능에 관한 비유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도전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리들은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우선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에서 분명해집니다. 재능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거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열해 보십시오. 영적인 면, 음악, 연극, 학문, 운동 등 여러분 생활의 다방면에서 즐기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시키십시오. 통찰력과 영감을 위해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한 친구, 교사, 지도자들과 상의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원들 앞에서 종종 제게 경전을 읽게 한 훌륭한 초등회 교사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제가 경전을 읽을 때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했으며 잘 읽는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칭찬하고 격려해 준 덕분에 저는 어린 나이에 자신감을 얻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열아홉 살 된 선교사였을 때 저는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재능을 축복 받았는지 무척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재능이든 그것을 크게 발전시켜 더욱 효율적인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큰 열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전과 축복사의 축복을 연구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고, 선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재능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 첫번째 우선 순위는 자신의 가족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특별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내도록 도울 수



**우** 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것들을  
하나님 왕국 건설에 활용해야 합니다.





## 말해 봅시다.

1. 여러분이 나이가 훨씬 적었을 때의 사진을 보여 주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한다. 함께 다음 기사의 첫 두 단락을 읽고 여러분이 발전시킨 능력들에 관해 말해 본다.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하도록 권유한다.
2. 이 기사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을 차례로 읽는다. 여러분이 재능을 나누기를 두려워했던 때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경우에 대해 말하게 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3. 가족들에게 래스번드 장로가 가르친 세 가지 원리들에 밑줄을 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재능에 다른 것들을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능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그들을 돕고, 후원하고, 자문하고, 들어올려 준다면 그들이 거두는 성공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세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해 줄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언제든지 그것을 실행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 중요한 태도를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재능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데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육신과 마음을 통해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sup>3</sup>

여러분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주어진 것도 있는 반면 우리가 발전시켜서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그것들은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은사들이며, 그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인해 재능을 발전시키고 다른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 ... 먼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21)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즉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재능을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태복음 25:21) ■

## 주

1. 희랍어로 달란트(재능)란 “저울”을 의미한다. 신약 시대에 한 달란트는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의 무게나 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가장 무거운 측정 단위였다.(약 34kg) 달란트는 화폐가 아니었으며 일정량의 돈이었다.(Bible Dictionary, “Money”, 733~734쪽; “Weights and Measures”, 788쪽 참조)
2.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권(1966~1973), 1:688.
3. “Articles of Belief”, Bonneville International Corporation Management Seminar, 1991년 2월 10일.



예수님의  
말씀

# 부활에서 승천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



이 40일 동안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안내 지도를  
제공합니다.

디 리 토블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정성스럽게 다루면서, 시신을 도둑맞거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커다란 돌을 굴러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마태복음 27:57~60 참조) 3일 후,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에 대비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역을 베푸시면서 놀랍고 강력한 경험들로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지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분명한 약속에 대해 숙고해 볼 때, 이 40일 동안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안내 지도를 제공합니다. 주님은 최소한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 (1) 그분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 놀라운 선물의 상속인입니다.
- (2) 그분의 속죄는 완성되었으나, 그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3) 제자들은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활의 실재성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삼일째 되는 날 아침의 증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돌은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그 증거 이외에도 주님은 수많은 방문을 통해 그분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무덤 옆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방문을 받았습니니다. 두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졌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한복음 20:13~16)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구한다면, 진실로 그분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찾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개종하여 제자가 되었으며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충실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첫번째 확증 이후에, 다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나타났다는 소문과 구세주의 시신이 없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와 부활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26~27) 그 후 구세주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 열한 명의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6, 39)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 모든 확증들이 매우 중대한 가치가 있지만, 아마도 가장 생생한 증거는



**도** 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우리가 만약 성스러운 것들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호기심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팔일 후에 도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일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한복음 20:27~28) 이 확증과 함께 도마는 온화하면서도 분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29절)

도마의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우리가 만약 성스러운 것들을 알기 원하고 그 성스러운 경험들과 관련된 모든 풍요로운 축복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호기심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가르치신 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분의 제자들 중 일곱 명과 식사하신 일을 포함하여 주님의 부활에 관한 다른 놀라운 확증들도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요한복음 21:15~17 참조) “너는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21:22)는 말씀은 그분의 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즈음, 충실한 제자들 가운데 그분의 불멸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 완성된 그분의 속죄

구세주께서는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영생을 상속 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구세주는 그들에게 이미 그 차이점을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왕국]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2~6절)

도마의 질문(요한복음 20:25 참조)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의 가슴 속에 머물러 있으며 구세주의 대답은 오늘날 그 유일한 대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참여자가 되지 않고는 그분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도들을 가르치시면서, 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마가복음 16:16)

마태는 이 일에 관한 구세주의 말씀을 더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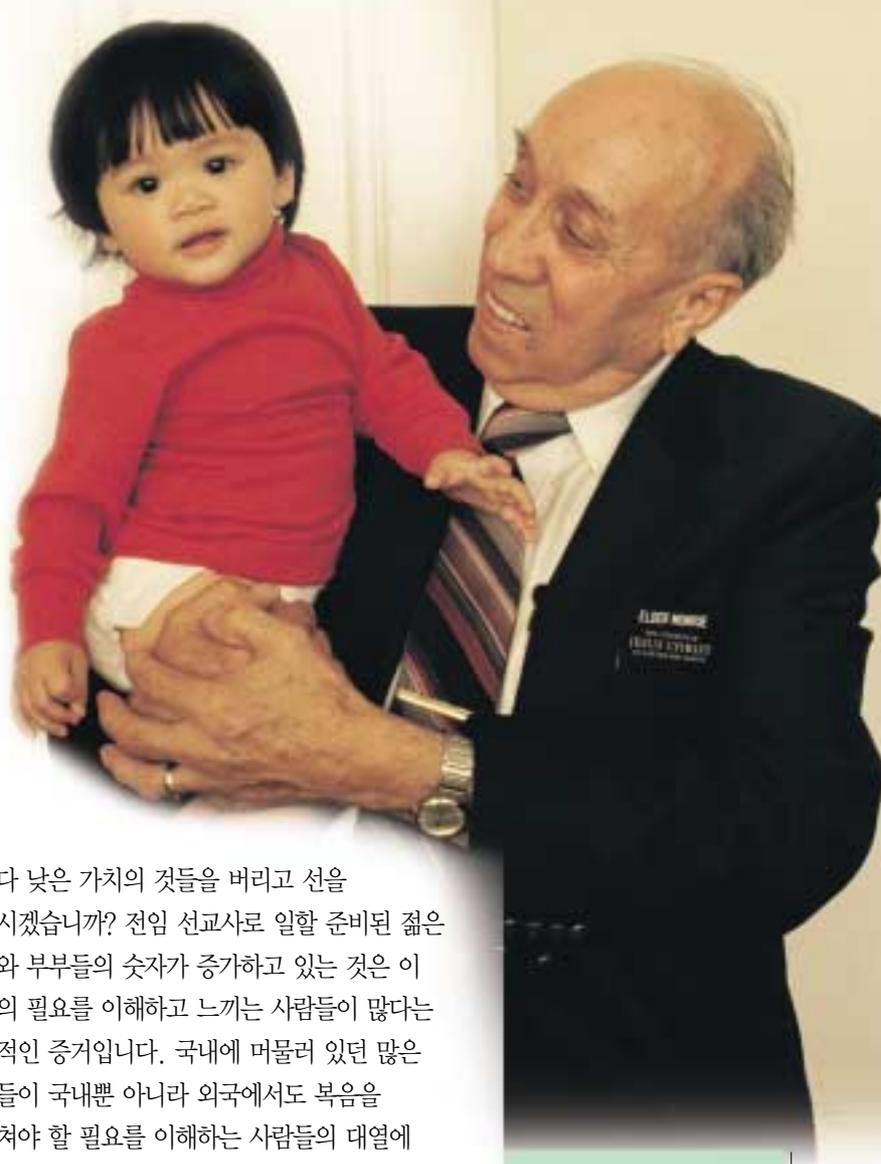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참여는 조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례 받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분의 길이 세상의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계명을 지키겠다는 침례 성약을 맺게 됩니다. 다른 성약들도 뒤따릅니다. 우리는

초기 제자들에 의해 입증된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맺은 성약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구세주의 속죄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평온한 확신을 성신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사도행전 1:5)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의식들은 약속의 성령에 의해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32:7 참조) 주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 복음을 세상에 전함

갈릴리 바닷가와 감람산에서 구세주는 사도들(그리고 그들이 부름을 줄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과 구속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과제와 부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사도들에게 주신 음식을 가리키며 질문을 하시고 이 것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 예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물으셨고 베드로에게서 비슷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17절)

이 초기의 제자들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물고기와 떡, 혹은 다른 세상적인 물질과 대상들이,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과 영혼의 문제보다 우위를 차지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최우선 순위로 여겼다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분의 양들을 영적으로 먹이라는 더 중대한 임무를 성취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승천 바로 직전에도 주님은 이 부름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교회의 회원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오늘날 이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웃과 가족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줄 때, 구세주의 양을 먹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낮은 가치의 것들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임 선교사로 일할 준비된 젊은 남녀와 부부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부름의 필요를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고무적인 증거입니다. 국내에 머물러 있던 많은 회원들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복음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점점 더 많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위대한 메시지를 나눌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통치하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 특별한 가르침들은 점점 더 긴박성을 띠니다. 신약을 공부하고 빛과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기원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영과 구속, 부활의 실재성에서 커다란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그들의 기쁨은 충만해지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주

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1976)

하 나님의  
예언자들이  
이웃과 가족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줄 때, 구세주의 양을 먹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낮은 가치의 것들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겠습니까?

## 샬리가 웃었기 때문이죠

제니퍼 엘 맥퀘이드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의 감동님은 와드에 오는 것을 환영하며 가정 복음 교사가 미처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왔다. 나는 그 편지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보관해 두었지만, 교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그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에서야 완전한 활동으로 돌아가는 첫번째 단계를 밟게 되었다.

교회에 가야 한다고 느꼈기에, 나는 가장 가까운 집회소를 찾아본 후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혼자 교회로 향했다. 주차장은 꽉 차 있었다. 차를 한쪽으로 세우는데, 마치 “저활동 회원”이라는 딱지를 달고 어색한 자리에 와 있는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 뒷문쪽으로 가는데 한 자매가 아기를 태운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동시에 또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애를 쓰며 앞서가고 있었다. 빈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고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샬리예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친절함 인사에 나도 인사를 되건넸다. 샬리는 나에게 오기를 잘했다는 느낌을 남겨 준 채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감독님이 유아 축복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나의 새로운 친구가 자신의 남편에게 아기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그녀의 갓 태어난 아기는 그 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잠을 내어 내게 인사를 건넸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는, 만약 내가 갓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 교회에 온 모르는 여자에게 환영 인사를 하는 것은

제니퍼 엘 맥퀘이드



**빈**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위해 문을 잡아 주고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샬리예요!”

거의 생각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빠른 속도로 활동화되지는 않았지만, 샐리를 비롯한 다른 사려 깊은 회원들은 계속해서 내 친구가 되어 주었다. 부지런한 방문 교사는 매번 약속을 정했다. 친절한 와드 회원들은 내게 전화를 해서 스테이크 대회나 바뀐 모임 일정에 대해 말해 주었다. 독신 성인 지도자들은 활동 모임에 꾸준히 나를 초대해 주었다. 비록 내가 “가도록 해 볼게요.”라고 공손히 대답할 때, 그것이 사실은 “전 안 가요”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다. 샐리의 단순한 인사는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고, 별 시간이 드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친절한 행동은 내가 교회 활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샐리의 미소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본다. ■

제니퍼 엘 맥케이드는 조지아주 파우더 스프링스 스테이크 리타이 스프링스 와드 회원이다.

## 분노에서 벗어나

완다 조 쿡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해 쓰여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특정한 도전들에 적용시킬 때 그것은 우리를 한 명 한 명에게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 몇 년 전 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러한 예를 경험했다.

남편과 나는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다. 그 당시 남편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의 월급에 의존해 재정적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특별한 와드 친구 몇 명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가 내게 전화를 걸어 자기 방으로 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최근 우리가 함께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그의 방으로 갔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취한 어떤 조치들에 대해 계속해서 매우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내가 사과를 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고 내 개인적인 성격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기가 막혔다. 나는 그의 능력에 대해 매우 큰 존경심을 가져왔고, 우리가 매우 진실한 동료 사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어떻게 회사에서 자신보다 몇 직급 위에 있는 나를 꾸짖을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다.

그의 폭언은 내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모든 사건 후에도 여전히 나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의 삶에 불행한 일들이 잔뜩 일어났고, 나는 운 나쁘게 그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았다.

상관에게 이 일을 보고했지만, 그렇다고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모든 경험들로 인해 나는 매우 낙담하고, 외로움을 느꼈으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직장을 잃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막막할 뿐이었다.

그 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설명하자 그는 시편 37편을 읽어 주면서 그가 낮에 경전 공부를 할 때 왜 이 구절을 읽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이제서야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시편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자 하나 ...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시편 37:8, 14, 39~40)

이 구절은 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그것이 내 상황에 너무나 잘 적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이 이 구절을 내게 읽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직장에서의 일로 인해 분노하고 원통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전을 통해 온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는 내게 마음을 평온히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내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또한 그것은 내가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받게 될 많은 축복들을 깨닫도록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다음 날 나는 기쁨과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터로 갔으며 동료의 단점을 보다 관대하게 보아 넘길 수 있었다.

이 경험에서 비롯된 영적인 성장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귀중한 힘의 근원이 되었다. 경전이 만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완다 조 쿡은 테네시 사타누가 스테이크 하우스 와드의 회원이다.

##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리카르도 로페스 데 멘도사

**부** 모가 될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우리도 찾아가기 태어나기를 몹시 기다렸다. 옷가지와 가구들을 사고 두 개의-하나의-남자 아기, 또 하나는 여자 아기의-이름을 지어 놓았다.

우리는 또한 임신 기간 내내 우리 아기에게 불러 줄 특별한 노래를 골랐다. 우리가 고른 노래는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였다.(어린이 노래책, 16~17)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자주 이 노래를 불렀다.

청아한 새 소리 들을 때나  
푸른 하늘 바라볼 때  
단비가 나를 간지를 때나  
바람 내 곁을 스쳐갈 때,  
부드러운 장미 만질 때나  
라일락 옆 지날 때  
이 세상에 사는 것 기뻐져요.  
주는 세상을 창조했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내는 온 몸에 붉은 반점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사를 찾아간 우리는 그 붉은 반점들이 풍진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사는 임신 초기(3개월)이므로 태아가 청각 장애나



**우** 리는 또한 임신 기간 내내 우리 아기에게 불러 줄 특별한 노래를 골랐다.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자주 이 노래를 불렀다.

시각 장애, 혹은 다른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날 위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 날 밤 우리는 이 노래의 2절 가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아름다운 나비 보라고 주 나에게 눈 주셨네  
신비스런 소리 들으라고 주는 나에게 귀 주셨네  
내 생명과 내 맘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내 몸은 주님이 창조한 것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우리는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한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 딸 앨리스는 한 달 일찍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난 후, 풍진의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무수한 검사를 받았다.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자,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아무 의심 없이, 우리도 그것이 기적임을 믿는다.

앨리스는 지금 일곱 살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를 부르기가 좋아한다. 우리는 영원히 감사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이처럼 항상 좋게 풀리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고난들이 지상에서 겪는 시험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노래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

리카르도 로페스 데 멘돈사는 브라질 트루히요 소로카바 스테이크 파르케 다스 라랑헤이라스 와드의 회원이다.

## 뒷문을 잠가라

켈리 앨런 프랫

결혼 초기에 우리는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에 살았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어떤 긴박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는 남편을 깨워 집 뒷문인 유리 미닫이를 잠갔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 버리고 다시 잠을 자려고 애썼다. 신경 과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타일렀지만 뒷문을 잠가야 한다는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침내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켈리, 가서 뒷문을 잠가!” 나는 따뜻한 침대에서 내려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유리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냥 들어오려고 하다가 문의 손잡이를 당겨 보았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자물쇠는 잠겨져 있었으나 문이 꼭 닫히지 않아 자물쇠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문을 당겨서 안전하게 잠근 뒤 침대로 돌아왔다.

아침이 되자 나는 전날 밤의 일은 거의 잊고 있었다. 그러나 커튼을 열어 젖혔을 때 무언가가 내 시선을 끌었다. 눈 위에 문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 간 큰 발자국이 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애써 떨쳐

버리려고 했던 그 느낌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던 침입자를 막아 준 것이었다.

그 추운 겨울 밤에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준 성신의 속삭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일로 인해 나의 귀기울이는 태도는 영원히 변화되었다. ■

켈리 앨런 프랫은 유타 하이랜드 동 스테이크 하이랜드 제3와드의 회원이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어떤 긴박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켈리, 가서 뒷문을 잠가!”



## 세미나리를 통해 받은 축복

후안 미구엘 아기레 엔카르나시온

**내**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내 친구 줄리아는 페루 리마에 있는 그녀의 와드에서 열리는 세미나리에 가자고 권유했다. 구약전서에 약간 관심이 있었던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친구의 이모인 로사 데 아리아가 자매가 세미나리 교사였는데 그녀는 매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면서 나는 경전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사 자매는 수업을 위해 내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경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따뜻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 후 어느 토요일에 나는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 활동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날 오후에 있었던 모임에 나는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온 것을 보고 놀랐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으나 한 형제가 내게 웃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모든 것이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사 자매에게 말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다. 로사 자매의 아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일요일 모임엔 그런 차림으로 올 수 없을 거야.”

다음 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고 집회소로 걸어 들어갔다. 모임의 질서 정연함과 사람들이 보여 준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시 한번 그 따뜻한 느낌을 느꼈으며, 그 느낌은 모임 내내 계속되었다. 합창단이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갖고 싶은 그런 훌륭한 느낌이었다.

첫 세미나리 모임에 참석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선교사들이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96년 4월 28일 나는 침례를 받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섯 달 뒤에 침례를 받았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침례를 받으셨다. 1998년 1월 31일에는 온 가족이 페루 리마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후에 나는 페루 리마 북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선교 사업 후에는 페루 선교사 훈련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다. 한때는 매우 어색했던 넥타이 매는 일이 이젠 일상화 되었다.

이 축복의 고리들이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 준 내 친구 줄리아와 세미나리 교사였던 로사 자매님에게 나는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후안 미구엘 아기레 엔카르나시온은 페루 리마 코렐로스 스테이크 로스 로렐레스 와드의 회원이다.

날 오후에 있었던  
모임에 나는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온 것을 보고  
놀랐다.



# 알고 계십니까?



## “의인들의 노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항상 말일성도의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1830년에 주님은 엠마 스미스에게 “거룩한 찬송가의 선정”을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25:11 참조) 그 후 5년 동안—이 기간은 그녀의 삶에서나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엠마 스미스는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의 커다란 도움으로 찬송가를 수집하고 개작했다. 마침내 1835년 8월에 교회의 첫번째 찬송가가 출판되었다. 엠마가 편찬한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성스러운 찬송가 모음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90곡의 찬송가가 수록되었다. 초기 성도들은 회복에 관한 교리와 믿음을 표현할 새로운 가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일성도 작가들이 원래의 찬송가 90곡 중 30~40곡의 가사를 썼다. 엠마의 찬송가 중 26곡은 현재 영어 찬송가에 여전히 남아 있다.

■ ■ ■ ■

## 8월에 일어난 일.

다음은 8월에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들이다.

1831년 8월 2일: 미주리 주 잭슨 카운티에서 있었던 기념식에서 시드니 리그돈(오른쪽)이 성도들의 집합을 위해 “시온의 땅”을 헌납했다. 그 다음 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인디펜덴스에 세워질 미래의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맨 위)



1878년 8월 25일: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왼쪽)가 창립한 첫번째 초등학교 모임이 유타 주 파밍톤에서 열렸다.

그 후 2년이 안 되어 1880년 6월 19일 루이 부튼 펠트를 제1대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하여 초등학교가 조직되었다.

##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대인 관계에 관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신감을 키워 줄 일에 자원해 보십시오. 학교나 지역 사회 봉사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 운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룹에 속하거나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대인 관계에 관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아트 온라인

www.lds.org/museum에 들어오시면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박람회를 통해 가상 박물관 투어를 하시거나 박물관 국제 미술 경연 대회 수상자들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회는 3년마다 열립니다. 다음 대회 마감 날짜는 2005년 11월입니다. 작품을 제출하시려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품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churchmuseum@ldschurch.org에 등록 신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와 등록 신청서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 리아호나

## 2003년 8월호

### 활용하기

#### 토론 제언

•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12쪽: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가족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쉽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분의 제언들에 대해 토론하고 첫 단계를 밟기 위해 계획을 세워 본다.

• “우정의 그물”, 32쪽: 리차드 에이치 윈켈 장로는 삼나무가 근처 나무들의 뿌리에 자신의 뿌리를 얹어서 거친 바람을 견디는 방법에 대해 말씀했다. 교회 회원들은 삼나무와 같다.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 와드나 지부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한다.

• “달란트의 비유”, 34쪽: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는 재능에 관해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이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원리들이 여러분의 반원이나 가족들의 특정한 재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 “길을 비추는 신앙”, 친구들 2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야간 열차의 운행을 우리의 인생 여정에 비유했다. 기차의 전조등이 기관사에게 길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지 토론한다.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 자신의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몰몬경의 이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가?

1. 모사이야 왕은 니파이인 무리와 함께 도망쳐, 물레크 백성들과 연합했다. 물레크인들이 살았던 땅의 이름은 무엇인가?

- ㄱ. 기드기드노나
- ㄴ. 리하이-니파이
- ㄷ. 제이라헤물라

2. 엘마가 침례를 베풀었던 샘의 이름은 무엇인가? 후에 한

#### 이번 호의 주제들

- 친=친구들
- 가르침 .....48
- 가정 복음 .....7
- 가정의 밤 .....48
- 가족 관계 .....친7
- 가족 역사 .....12, 28
- 간증 .....친16
- 개종 .....26, 42
- 경전 공부 .....42
- 교회 역사 .....47, 친14
- 모범 .....친4
- 방문 교육 .....25
- 봉사 .....2, 42
- 부활 .....38
- 사랑 .....2, 8
- 선교 사업 .....26, 28, 38
- 성신 .....22 42
- 성전과 성전 사업 .....친6
- 세계적인 교회 .....친7
- 세미나리 .....42
- 순종 .....12, 22
- 신권 .....친10, 친12
- 신앙 .....18, 친2
- 신약전서 .....34, 38, 친10, 친12
- 안식 .....친7
- 어린이들 .....42
- 역경 .....18, 25, 42
- 예수 그리스도 .....34, 38, 친10, 친12
- 용서 .....42
- 우정 .....8, 32, 42
- 음악 .....47
- 자유지 .....22
- 재능 .....34
- 죽음 .....2
- 준비 .....25
- 지도력 .....47, 48
- 지속적인 활동 .....32
- 초등학교 .....친4, 친14, 친16
- 화평 .....42
- 활동 촉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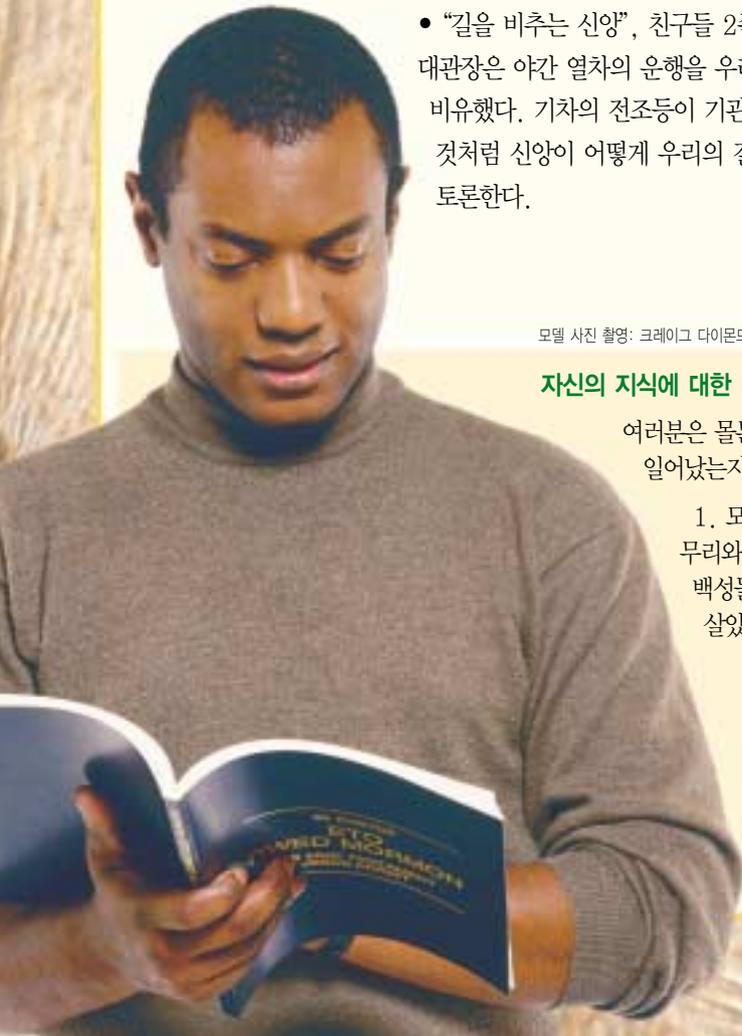
니파이인 예언자는 이 샘과 이름이 똑같았다.

- ㄱ. 힐라맨
- ㄴ. 몰몬
- ㄷ. 레이맨

3. 니파이인들이 안타이 니파이 리하이인들에게 상속의 땅으로 준 땅의 이름은 무엇인가?

- ㄱ. 바운티폴
- ㄴ. 이레레안툼
- ㄷ. 여어손

3. ㄱ (영어) 27:21~22 참조  
2. ㄴ (영어) 10:1~2 참조  
1. ㄷ (영어) 1:12~14 참조



# 친구들



# 길을 비추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젊은 시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좁은 산길을 질주하는 야간 열차를 탄 적이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신앙의 빛이 낙담의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누구나 세상을 사노라면 의심과 낙담과 환멸이라는 암울한 시기를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빛을 들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길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 곧 바울이 설명했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인 신앙을 가지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오래 전, 저는 이 서부 산악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 회사의 한 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차를 자주 탔습니다. 그 시절에는 증기 기관차가 다녔습니다. 철로 위의 그 괴물 덩어리는 크고 빠르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기관사가 어떻게 어둠을 뚫고 그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깨달음은 그것이 긴 여행이 아니라 짧은 여행의 끊임없는 연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차에는 사 오백 야드(360~460미터) 전방을 환히 비추는 성능 좋은 전조등이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그 정도의 거리만을 볼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 올 때까지 그 길은

언제나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

(교리와 성약 50: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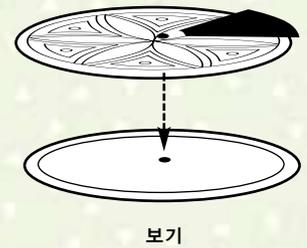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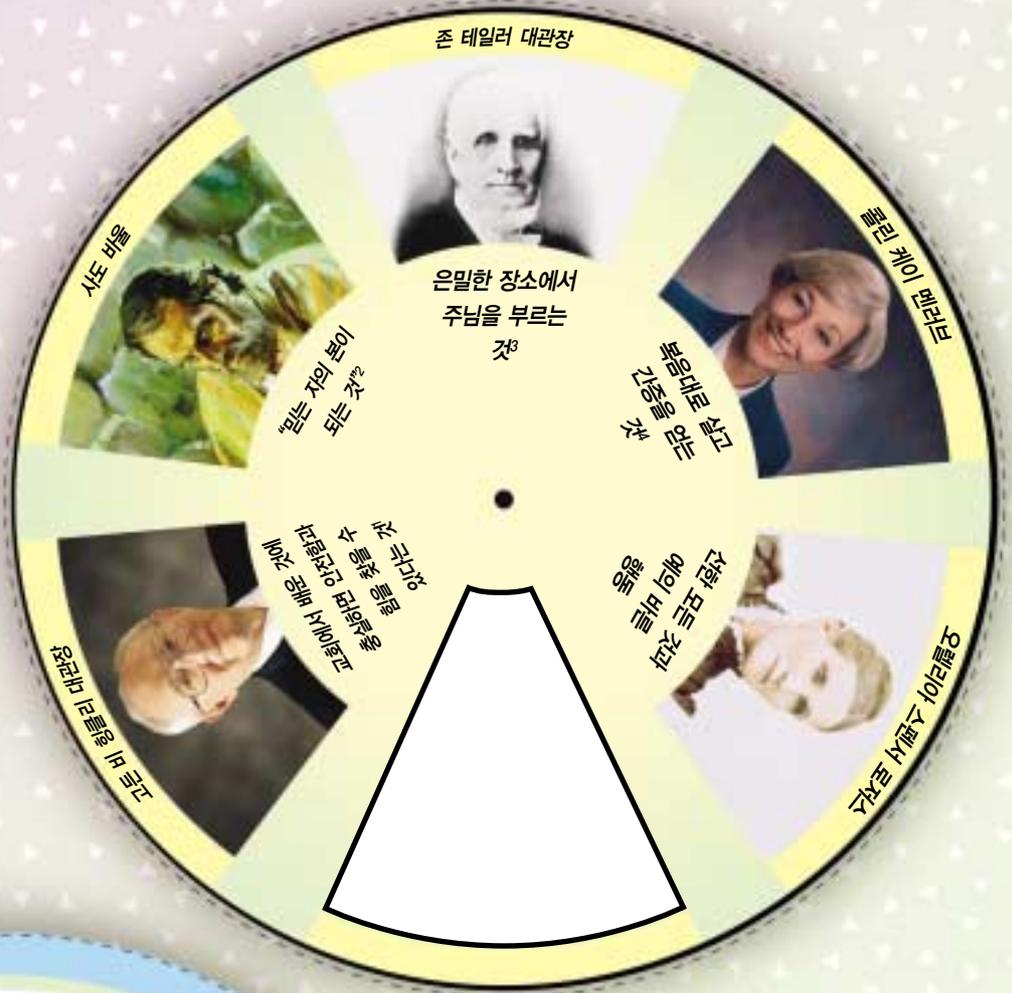
우리의 영원한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미지의 세계로 내닫게 되지만 신앙으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키워 나간다면 어둠 속을 헤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200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나는 배울 수 있어요” 바퀴**

1. 이 쪽을 두꺼운 종이 위에 붙인다. 두 원과 “나는 배울 수 있어요” 바퀴에 있는 창을 오려 낸다.
2. 그림이 있는 원의 빈 공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넣고, 믿는 자의 더 나은 본이 되는 것과 관련해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그 밑에 적는다.
3. 원들의 중심에 맞추어 두 원에 구멍을 뚫고 조임쇠를 끼워 넣는다.
4. “나는 배울 수 있어요” 원을 움직여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읽는다.



- 주
1.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함께 나누는 시간, 물품 번호 53331 320.
  2. 디모데전서 4:12.
  3. James R. Moss, “Young John Taylor”, *New Era*, Oct. 1980, 29.
  4. “A Testimony Makes Me Feel Happy Inside”, Primary open house, Apr. 2002, 8.
  5. Pat Graham, “Happy Birthday, Primary”, *Friend*, Aug./Sep. 1983, 34.

#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비키 에프 마쭈리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있지 아니하니”(모사야서 5:8)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에,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지 혹은 구세주를 어떻게 더 잘 따를 수 있는지에 관해 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구세주와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가르침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고든 비 항클리 대관장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언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름에 경박하고 경건치 못한 말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1쪽) 그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1878년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자매는 어린이들이 매주 만나서 구세주와 믿는 자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에 대해 배우게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교회의 대관장이었던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 생각에 동의하셨고, 최초의 초등학교가 조직되었습니다.

125년이 지난 현재, 콜린 케이 멘러브 자매님이 분부 초등학교 회장이며 어린이들에게 “복음대로 살고 ... 간증을 얻으라”(“A Testimony Makes Me Feel Happy Inside”, Primary open house, 2002년 4월호, 8쪽) 격려하고

계십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구세주를 따를 때, 여러분은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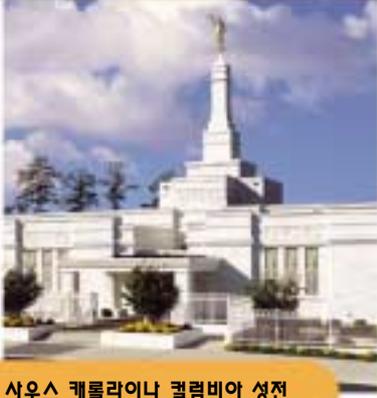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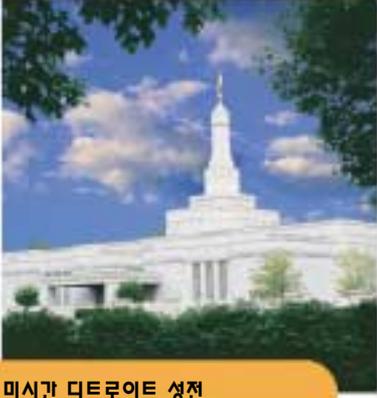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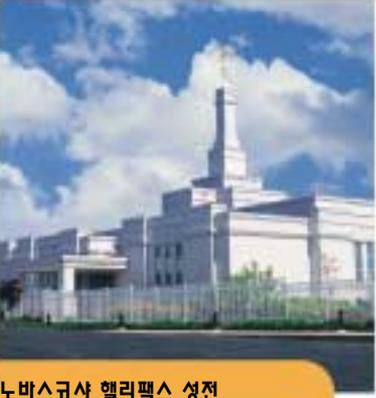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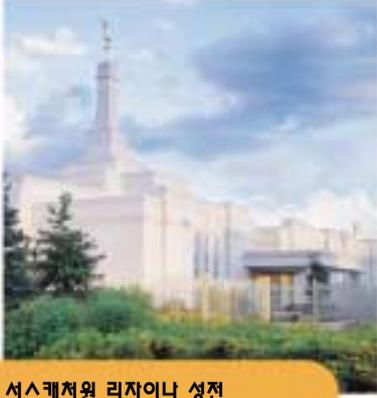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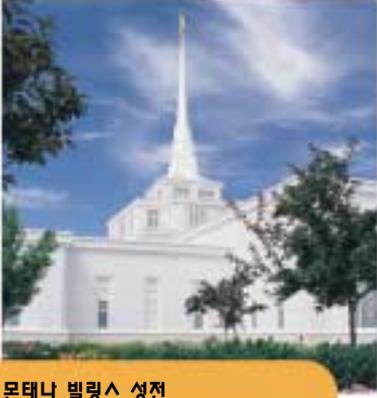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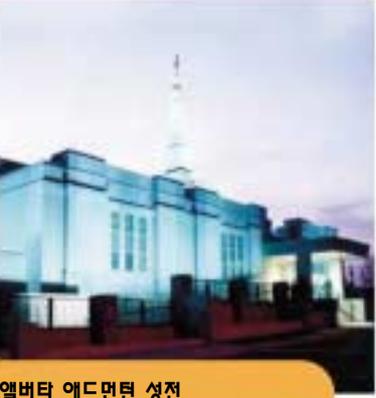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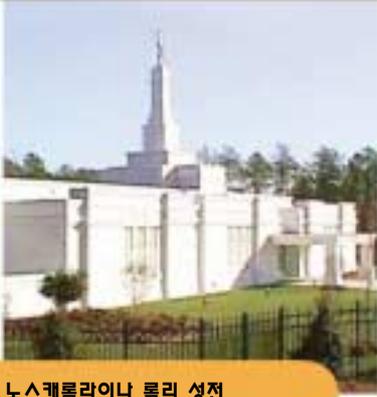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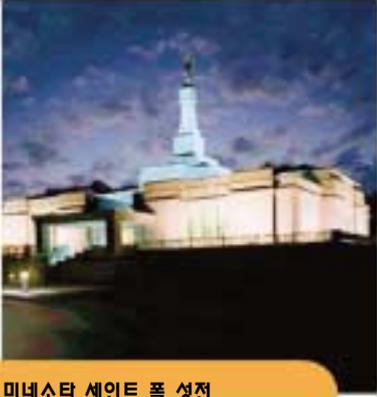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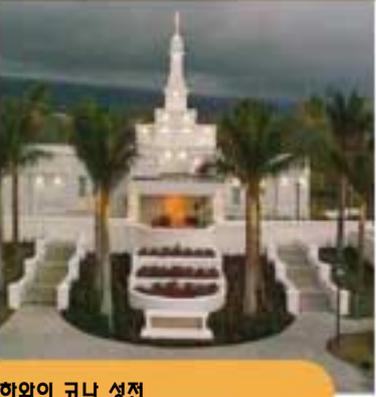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교리와 성약 107편 4절을 살펴 보면서 각 이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나타내고 구세주의 사명에 대해 설명해 주는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준다. 칠판에 다음 참조 성구들을 쓴다. 욥기 19:25(“구속주”); 이사야 9:6(“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누가복음 2:11(“구주”, “그리스도 주”), 요한복음 1:29(“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49(“이스라엘의 임금”, 요한복음 10:14(“선한 목자”), 요한계시록 1:8(“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어린이들에게 참조 성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써 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이 출애굽기 20장 7절을 외우도록 도와 준다.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줄 성구를 종이에 쓴 단어들을 자른다. 각 그룹에게 성구를 배열하게 한다.

2. 성찬식에서 주님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누가복음 22:19~20, 교리와 성약 20:77, 79, 최후의 만찬 그림 등을 사용하여 최후의 만찬에 대해 설명한다. 빵과 물은 무엇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구세주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희생하신 것) 우리는 성찬을 들면서 무엇을 약속하는가?(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심) 성찬식 동안 구세주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는 장소에 어린이들을 데려간다. 아론 신권을 가진 청소년을 초대해서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성찬에 관한 찬송가나 어린이 노래를 부른다. ●

# 성전 카드

2003년에는 친구들 각 호마다 성전 카드가 실립니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오려 내십시오.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카드를 모으십시오.

 <p><b>사우스 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성전</b> 1999년 10월 1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브라이언 드래슬러</p>	 <p><b>미시간 디트로이트 성전</b> 1999년 10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जिना 테니스 토머슨</p>	 <p><b>노비스코샤 핼팩스 성전</b> 1999년 11월 1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로버트 뮌스</p>
 <p><b>서스캐처원 리자이나 성전</b> 1999년 11월 14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돈 크루익 생크</p>	 <p><b>몬테나 빌링스 성전</b> 1999년 11월 20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사진 촬영: 필 벨 포토그래피</p>	 <p><b>앨버타 에드먼턴 성전</b> 1999년 12월 1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b>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성전</b> 1999년 12월 18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b>미네소타 세인트 폴 성전</b> 2000년 1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p><b>하와이 코나 성전</b> 2000년 1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p>

# 탐 호이 훈

##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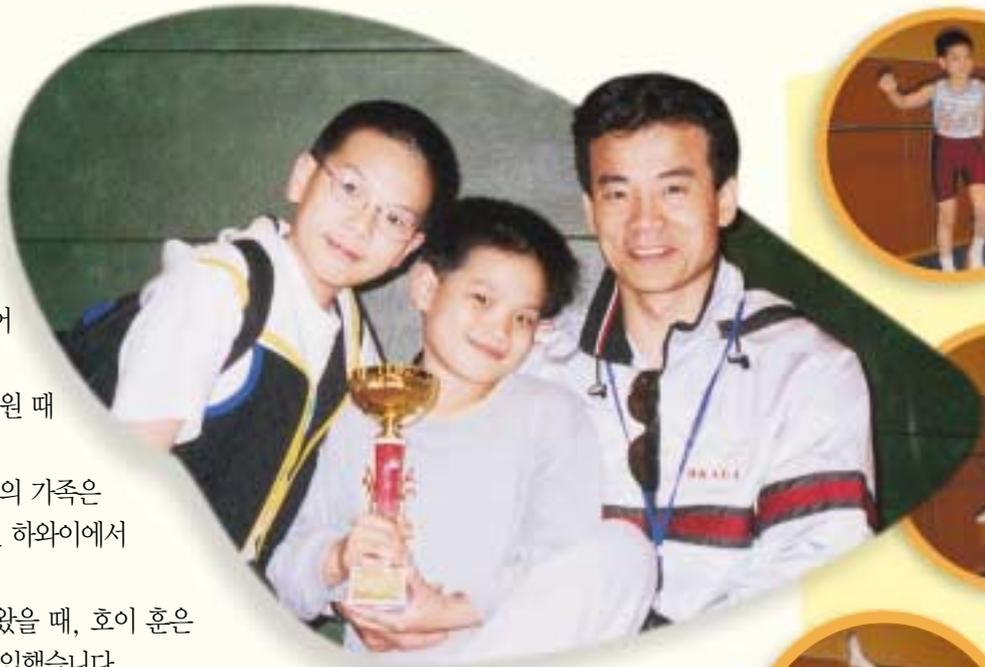
에밀리 치엔과 티파니 이 루이스

**탐** 호이 훈은 아주 어렸을 때 타고 오르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거리의 가로등을 타고 오르거나 심지어 맨손으로 야자 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치원 때 제일 좋아하던 수업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탐의 가족은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하와이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홍콩으로 돌아왔을 때, 호이 훈은 홍콩 아마추어 체조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팀에 들어간 후 그는 2001년 홍콩 체조 경기에서 입상했습니다. 호이 훈은 이제 열 살이며 홍콩 아일랜드 스테이크 애버딘 와드의 회원이고 체조와 민음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조는 호이 훈에게 재미있는 동시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부모님은 기차로 한 시간 반이 걸리는 연습장에 호이 훈을 데려다 주신 후 다시 한 시간 반이 걸려서 집에 돌아옵니다. 연습에는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체조 동작을 배우는 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면 500번 이상은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이 훈은 함께 운동하는 어린이들을 좋아하며 공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들으면 그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호이 훈이 가장 좋아하는 체조 동작은 뒤로 공중돌기입니다. 그는 착지하기 전에 두 번 몸을

*오른쪽: 호이 훈은 연습을 열심히 하며 자주 상을 탄다  
위: 호이 훈, 큰 형 관 램(왼쪽), 천 유 티엔 코치(오른쪽)와 함께*



위: 호이 훈과 관 램의 생일을 축하하는 탐 가족.  
오른쪽: 코치 선생님 중 한 명과 호이 훈

비트는 공중 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작들은 매우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중국의 전통입니다. 그것은 호이 훈이라는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이는 “바다”라는 뜻이며 훈은 “넓고 광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호이 훈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용서하는 능력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호이 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므로 이 이름은 그에게 잘 어울립니다. 체조 남자 4인 경기가 그의 주종목인데 그는 다른 세 명의 소년과 연기를 합니다. 코치 선생님이 호이 훈에게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이 종목이 서로 다른 연령의 체조 선수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호이 훈은 탐 가족의 세 자녀 중 가운데입니다. 열두 살인 형 관 램은 피아노

연주와 노래 부르고 수영을 좋아합니다. 네 살인 여동생 히우요는 무용과 동화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세 명의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갖게 된 것에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특별해요.”라고 탐 자매는 말합니다.

탐의 자녀들은 모두 모범생들이며 평일에는 가족 모두가 학교 일로 바쁩니다. 여유가 있을 때 그들은 운동장이나 집 근처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호이 훈은 초등학교를 좋아하며 공과에서 배운 내용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호이 훈은 좋은 모범을 보이고 계명을 지키는 일의 가치를 믿습니다.

2001년 7월에 호이 훈은 홍콩 정부의 초청으로 다른 유명한 체조 선수들과 함께 중국 체조 금메달리스트 쇼에서 공연했습니다. 그 때 여덟 살이었던 호이 훈은 참가자 중 가장



어렸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공연 전 일요일 마지막 총연습에 참석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탐 가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이 훈의 아버지는 코치에게 호이 훈이 다른 모든 연습에는 참석하겠지만 일요일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치들과 다른 관계자들은 기분이 상했고 호이 훈 대신 다른 소년을 쓰려고 했습니다. 탐 가족은 그들을 설득하려 하는 대신, 매일 밤 가족 기도를 통해 호이 훈이 공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관계자들은 그가 공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총연습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이 훈은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호이 훈은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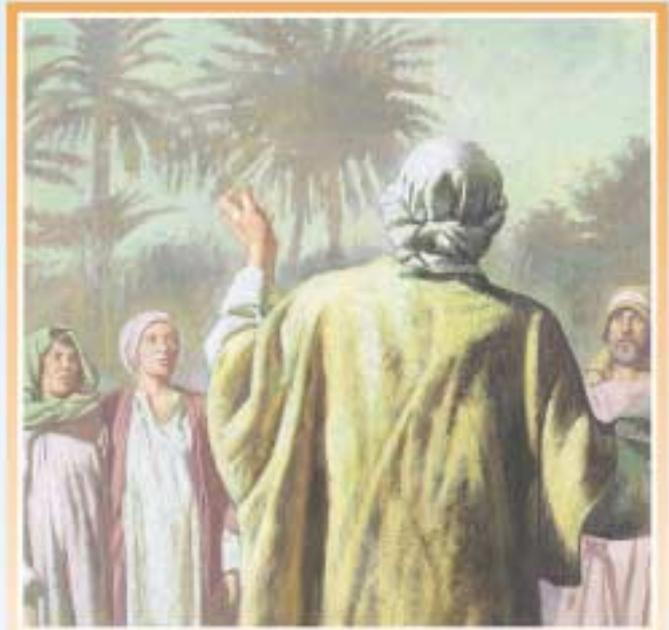
호이 훈의 코치인 천 유 티엔은 호이 훈이 훌륭한 체조 선수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견딩니다. 호이 훈은 튼튼하고 강한 팔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이 훈이 매우 성공적인 체조 선수가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호이 훈도 동의합니다. “아빠랑 엄마가 절 무척,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또 그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을 알기에 그는 가정에서, 운동에서, 또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에밀리 치엔은 타이완 타이페이 센트럴 스테이크 타이페이 제2와드의 회원이다. 티파니 이 루이스는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마이애미비치 와드의 회원이다.



# 시몬과 신권



삽화: 티베르 리베르

사마리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5, 12~16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신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14~17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이 두 사도가 신권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신권의 권세를 갖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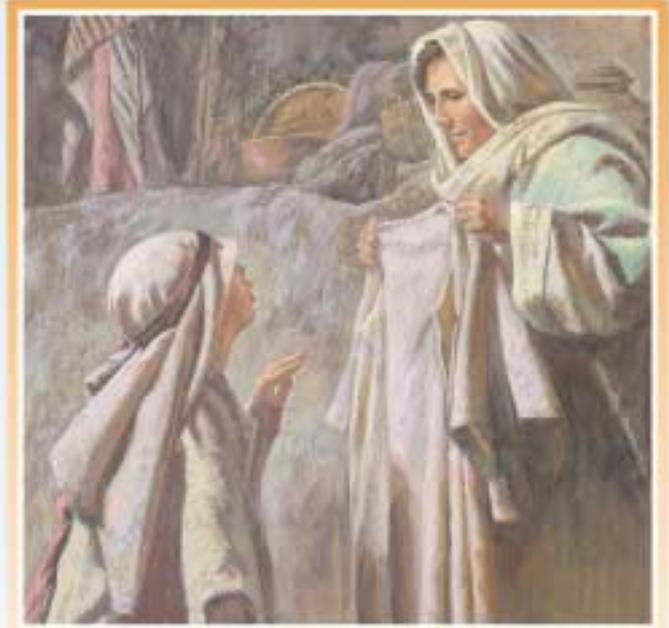
사도행전 8:9, 18~19



시몬은 사도들에게 신권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신권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신권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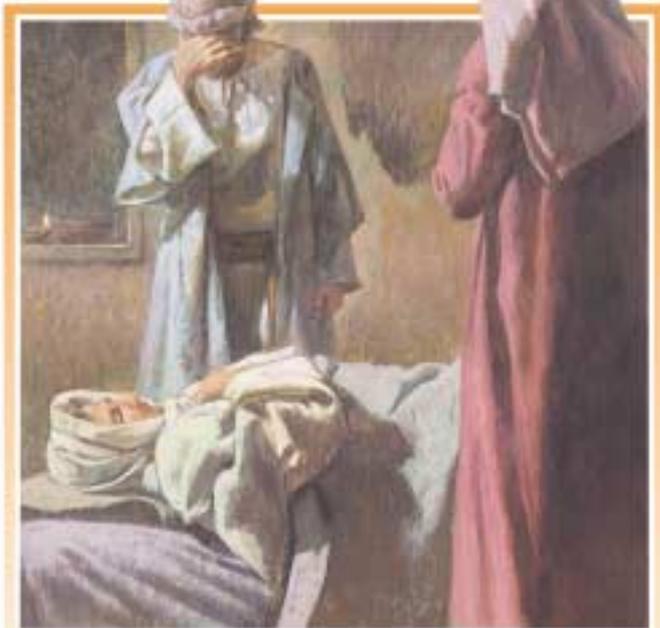
사도행전 8:18~24

#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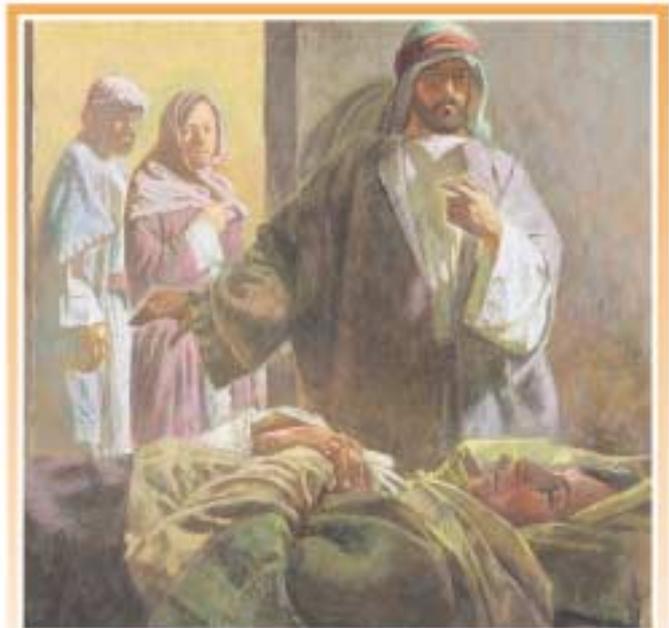
다비다라는 이름의 한 선한 여인이 옴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9:36



어느 날 그녀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9:37



그녀의 친구들은 베드로를 불러 왔습니다. 그는 다비다의 친구들에게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38~40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도행전 9:40



베드로는 그녀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그 후 방으로 돌아온 친구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여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옴바의 많은 사람들은 다비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9:41~42



# 초 등 회 그 때 와



“당신이 세상 어디에 있던 나와 함께 초등학교에 가요”(어린이 노래책, 영문 255쪽)

## 크리스틴 래플리에

**처**음 초등학교에 왔던 날을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일학교나 상호부조회, 혹은 신권회에 참석하신 일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몇 살이었죠? 모임은 어디에서 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공과를 들었나요?

최초의 초등학교는 1878년 8월 25일 유타 주 파밍톤에서 열렸습니다.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자매님은 소년들에게 예절과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와드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것에 관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과

의논하셨습니다. 스노우 자매님을 통해 로저스 자매님은 첫번째 초등학교 모임을 존 테일러 대관장님으로부터 허락 받으셨습니다.

그 분들은 소녀들도 함께 참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첫번째 모임이 열리기 며칠 전에 로저스 자매님과 그 분의 보좌들은 와드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4세에서 14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자그만치 115명의 소년들과 100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첫날, 224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노래와 시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올바른 행동에 관한 공과를 하셨습니다. 어떤 소년들은 남의 집 정원에 들어갔고 어떤 소녀들은 마차에 매달려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번째 모임 후에,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몇몇 다른 지역에도 초등학교를 조직하셨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교실이 한 개밖에 없는 학교나 와드 건물에 모였습니다. 어떤 곳은 50명에서 60명, 또 어떤 곳은 1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초등학교에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 몇 년 동안,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직접 손으로 쓴 신문을 만들었고, 어떤 곳에서는 합주단을 조직했으며, 또 어떤 초등학교들은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모았습니다. 바자회에서 나온 기금은 가난한 어린이들이나 다른 교회 회원들을 돕고, 성전의 가구를 구입하는

왼쪽 중앙: 사진 촬영: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 오른쪽과 16쪽: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몬드, 미르티 마요, 매튜 리어

# 제 품



데 쓰였습니다.

후에 초등회는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잡지를 발행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과 텔레비전 쇼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세계 여러 지역에 초등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회원들의 집이 서로 너무 떨어져 평일에 교회에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초등회를 가졌습니다.

1900년대 초에 초등회는 나이에

따라 반을 나누었고, 각 반에 맞는 공과가 마련되었습니다. 나중에 12~14세 어린이들은 상호 향사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화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초등회는 일요일에 열립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전세계에서 초등회에 참석합니다. 여러분은 125년 전에 유타의 한 초등회 교실에서 시작된 이 조직의 일원입니다!



# 왜 초등학교를 좋아하나요 ...



저와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일요일에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곱 살인 제이콥 켈리는 호주 시드니 그린위치 스테이크 벌크햄 힐스 와드의 회원이다.



저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오천 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모든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 살인 펜카 페트코바는 불가리아 소피아 지방부 지오 밀레브 지부의 회원이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섯 살인 브랜든 체키츠는 유타 노스 로건 그린 캐년 스테이크의 노스 로건 제11와드의 회원이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그림 그리기와 글 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또한 선생님이 보여 주시는 그림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가족들을 잘 대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덟 살인 페테로 불리는 피지 노소리 스테이크 토가 지부의 회원이다.

노래 부르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신에 귀 기울이는 것과 경건해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섯 살인 마키아 반하트는 펜실베이니아 윌리엄스포트 스테이크 윌리엄스포트 와드의 회원이다.



저는 경전에 대해 배우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열한 살인 에디 에마누엘 가스띠요는 과테말라 치말떼낭고 꼬말라빠 와드의 회원이다.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택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때때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간구할 때, 도와 주십니다.

일곱 살인 나오미 메스톤은 벨기에 안트워프 스테이크 루벤 지부의 회원이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도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배웠습니다.

네 살인 부록 피터슨은 미주리 스프링필드 남 스테이크 스프링필드 제3와드의 회원이다. ●

